

第147回國會 (閉會中)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政治權力型 非理調查特別委員會와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의 連席會議의 會議錄 第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12月31日(日)

場 所 參議院會議室

議事日程

1. 全斗煥前大統領證言聽取의件

審査된案件

1. 全斗煥前大統領證言聽取의件..... 2面

(10月6分 開議)

○委員長 黃明秀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政治權力型 非理調查特別委員會와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의 連席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本 委員長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웠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民主時代를 열기 위한 역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같이 모였습니다.

13代國會의 開院과 함께 5共特委와 光州特委를 중심으로 해서 聽聞會 활동을 온 國民들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불러 일으키면서 暴惡과 非理로 얼룩진 5共和國의 실체를 일부나마 國民들에게 밝힘으로써 民主化와 改革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本委員長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國民들의 열망을 담은 清算과 民主改革의 과업은 아직껏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끊임없는 政治社會的 갈등과 대립 구조를 완화시키지 못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政治人의 한 사람으로서 國民앞에 진실로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國會를 代表해서 5共特委의 委員長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國民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제 우리 政治人들은 國民의 뜻에 부응치 못한 자책과 함께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清算과 民主改革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다시한번 마음깊이 새기면서 이 자리에 우리들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5共和國의 탄생 을 위해서 벌여졌던 비정하고 不道德한 수많은 사건들이 正義로운 이러한 社會具現의 허울좋은 美名 아래恣行되었던 자의적 專橫과 脫法이 다시는 이 땅위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기 위해서 非民主的 政權이恣行했던 비리와 과오에 대한 全斗煥 前大統領의 진실한 證言을 듣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지금 過去問題로 역사의 진로를 머뭇거릴 수 없는 중차대한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는 것은 누구도 이것을 부인키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허나 역사적 진실도 책임질 실체도 분명치 않은 현 상황에서 용서와 화해의 일방적 요구에 國民적 거부가 일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할 이러한 엄연한 시대적인 사실이올시다.

全斗煥 前大統領이 5共非理의 실제적 진실에 관한 구체적인 이러한 證言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正義社會와 民主福社國家로서의 도약과 전진을 약속하는 國民和合의 전기가 마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連席會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連席會議의 運營에 관한 兩特委 合意事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共·光州特委連席會議는 두 特委의 성격상 5共特委 所管에 대한 訊問에 대해서는 5共特委 委員長이 司會를 하고 光州特委

所管事項에 대한 訊問에 대해서는 光州特委 委員長이 司會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證人宣誓의 方式은 宣誓書를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委員長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補充訊問의 方法은 口頭訊問과 口頭答辯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交渉團體別로 네 분 委員이 一括補充訊問하고 答辯準備에 필요한 停會時間이 주어집니다.

一括答辯證言에 대해서는 補充訊問時間은 委員 1人當 20分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議事進行發言問題는 원칙적으로 證言 도중에는 議事進行發言을 할 수 없으나 會議 運營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경우 해당 交渉 團體의 幹事에게 요청해서 4黨幹事가 협의하여 委員長에게 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會議狀況 中繼放送問題는 與野領袖會談의 合意 아래 錄音·錄畫放送을 各 放送社에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會議時間問題는 하루 會議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答辯의 마무리를 위해서 次數 變更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여겨질 경우에는 幹事會議의 합의를 거쳐서 證人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심 저녁식사를 위해서 各 1時間30分 停會를 하고 그리고 두시간 證言을 들을 때마다 10分間 휴식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傍聽人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傍聽人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傍聽席에서는 정숙과 단정히 하여야 하였습니다.

음식을 잡수시거나 담배를 피우시거나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新聞이나 책을 읽지 못하고 會議場의 發言에 대하여 의사표시나 박수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傍聽規則을 위한 여러분들의 일은 이에 대해서 많이 지켜 주시고 만일에 이것을 위반할 시는 國會의 警衛가 퇴장하게끔 명령을 할 것입니다.

1. 全斗煥前大統領證言聽取의件

(10時15分)

○委員長 黃明秀 그러면 오늘 連席會議 議事日程으로서 證言聽取의件을 上程하겠습니다.

事務處에서는 證人을 會議場으로 入場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入場)

여러委員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月 23日 全斗煥 前大統領에 대하여 오늘 10時에 開議되는 5共 및 光州特委連席會議의 證人으로 出席을 해서 證人訊問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證言을 聽取하게 된 것이울시다.

그리고 證人으로부터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第9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서 李亮 兩辯護士를 證人의 辯護人으로 선임하였다는 通知가 있습니다.

그러면 證人宣誓에 앞서서 宣誓의 趣旨와 處罰規定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證人이 宣誓을 하는 이유는 證人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證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證人이 虛偽의 陳述을 한 때에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第14條第1項 및 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서 告發될 수 있는 것을 證人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證人의 宣誓가 있겠습니다.

證人께서는 發言臺에서 宣誓書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斗煥

(證人宣誓)

○張石和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신청합니다. 證言전에 제가 우선...

(場內騷亂)

○委員長 黃明秀 조용히 해주세요. 4黨 幹事들 이리로 올라오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黨幹事會議에서 합의한대로 議事進行 發言申請이 들어오면 즉각 4黨幹事連席會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幹事會議를 한 결과 앞으로 적당한 시기를 타서 줄 수 있되 만일에 어느 한黨이 지금 議事進行發言을 한다면 계속해서 黨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대단히 미안하지만 張委員께서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張石和委員 會議의 進行방법이 國會法에 위 받됩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黃明秀 조용히 해 주세요. 會議를 續開합니다.

證人에게 오늘 證言方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月23日 證人出席要求書와 함께 送付하여 드린 兩 特委의 證人訊問事項에 대하여 5共 및 光州特委 訊問事項을 구분하여서 證言해 주시면 대단히 편리하겠습니다.

먼저 5共特委 訊問事項에 대하여 一括 證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光州特委 訊問事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補充訊問과 여기에 대한 答辯은 證人은 書面訊問事項에 대해서는 一括로서 答辯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證言前에 우리가 현재 이 委員들이 각자가 지금 議事進行發言 하나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합의가 法 위반 무효입니다.

왜 議事進行發言을 즉시 못 줍니까?

○委員長 黃明秀 本 委員長이 여러 委員님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사 이런 것을 집약해서 證言前에 本 委員長이 證人에게 몇 말씀 苦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前職 大統領이 國民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5共和國 政權 篡奪過程에서의 暴壓과 執權期間 동안 자행된 脫法 非理 制度的 不正腐敗에 대해서 證言하고자 國會의 證言臺에 서야하는 이 現實은 참으로 비통한 사실이올시다. 이와 함께 清算의 핵심에 있어야 할 崔圭夏 前 大統領의 國會證言 拒否는 國民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할 責任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처사임을 本人은 지적해 둡니다.

歷史는 이 사실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내릴 것을 本人은 확신합니다. 때문에 오늘 全斗煥證人의 證言이 갖는 歷史的 의미는 실로 중대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本人은 證人이 작년 11月 모든 것을 다 털고 百潭寺에 칩거하던 심정과 修道者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國民的 大義와 名分에 입

각한 결허한 이러한 자세로써 화합과 용서를 위한 歷史的 도약의 창구가 될 만한 숙연한 이러한 證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本人은 東歐羅巴에서 일고 있는 民主化 改革의 물결과 이를 끝내 거부하다가 몰락한 차우세스쿠 獨裁者의 최후를 지켜보면서 이 時代의 우리 政治人이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德目은 國民의 뜻을 성실히 받드는 것 뿐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證人은 이와같은 歷史的 조류와 時代的 요구를 결허하게 수렴하여 5共非理의 정점에서 超法的 統治權을 행사하던 證人이 5共非理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성실한 證言에 熱과 誠을 다할 때 이 땅 위에 政治權力에 의해 자행된 폭압과 制度的 不正腐敗가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할 政治風土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證人은 政治資金의 不法造成過程에서 비롯된 각종 政治權力型 非理와 野團 彈壓과 分裂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國民들의 의혹과 각종 人權彈壓事例 그리고 光州民主化運動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6·29宣言의 배경 등 5共特委와 光州特委에서 제기한 125個 項目의 質疑에 대해서 4,200萬 國民과 歷史 앞에 부끄럽지 않은 證言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아마 말씀드릴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補充質疑에 대해서 4黨에서 一括的으로 口頭質問하고 또 이것을 一括的으로 이렇게 答辯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證人께서는 證言臺에 나오셔서 證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斗煥 特委 委員 여러분!

(場內騷亂)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國民 여러분! 지난해 11月 參회의 告別辭를 드리고 國民 여러분 곁을 떠나 山間僻地의 閉寺에서 反省과 修道의 길을 걸어온 제가 오늘 이처럼 國會에 나와 다시한번 國民 여러분에게 언짢은 문제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80年代를 마감하는 설날 그믐날인 동시에 21世紀를 향한 길목에서 밝아오는 1990年代의 첫해를 맞이하게 되는 前夜입니다. 송구영신하는 이 뜻깊은 시점에서 한 때 이 나라의 大統領을 지낸 제가 새아침의 여명속에 희망과 기쁨의 말씀을 드리지 못할망정 지난날의 어두웠던 기억과 아불어가면 상처를 일깨우게 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다름 아닌 저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임을 되새길 때 새삼 제 不德을 뉘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三權分立主義의 大統領中心制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 한번의 先例도 없는 前職大統領의 國會出席證言이라는 汚點을 우리 憲政史에 남기게 된 것은 저의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過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두가 源泉的으로 저로 인해서 초래된 하나의 業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國民과 歷史앞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 그리고 委員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난해 11月 서울을 떠나 謝罪의 은둔생활을 시작하면서 國民 모두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단합해서 새로 출범한 政府를 도와 國家發展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在任期間中에 있었던 일 때문에 가슴깊이 恨이 맺히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저의 은둔이 그 모든 아픔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당시 저는 그 이상의 어떠한 단죄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言論을 통해 나타난 輿論이나 政治圈의 요구는 在任중의 과오를 사과하고 남은 政治資金이 있으면 헌납하고 고향에 가서 살라는 것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過去清算問題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저는 그 提議를 전폭 수용해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저 스스로 근신하는 뜻에서 낯설고 인적도 드문 百潭寺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간 일부에서는 海外長期旅行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저로서는 죽음보다 오히려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國家的으로도 國民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인 만큼 저른되는 일조차 없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러나 政治圈이 제시한 解決策이 모두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바 대로 過去清算論難은 꿈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저의 國會出席證言問題가 또다시 제기되었습니다. 5共清算問題는 政治의 安定과 國家發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으며 저의 國會證言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政治는 물론 經濟도 계속 뒷걸음치게 되고 社會混亂과 갈등도 모두 저의 證言問題때문이라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前職大統領의 國會證言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政治社會의 安定과 發展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저는 政治圈이 바라는 바 대로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國會出席證言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또한 그 證言도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證言이 될 수 있도록 證言의 方法 證言時期 등 政治圈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輿野가 합의하고 國會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委員 여러분의 質問에 대한 證言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의 證言의 내용이 委員 여러분에게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점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證言過程에서 具體的으로 언급될 것입니다만 質問 자체가 實務者들이 한 일 또 實務者들만이 알 수 있는 일 또는 저 자신이 당시에는 報告를 받았고 裁可를 한 일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 일 지금 이 時點에서 완벽하고 책임있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質問 중에는 간단하게 아니다 모르겠다 등의 한 마디로 答辯을 끝낼 수도 있고 또 보다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줄거리를 갖추어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質問의 순서에 상관없이 事案別로 묶어서 말씀드리게 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質問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人의 在任중에 있었던 일로서 質問書를 통해 제시된 몇 가지 質問點에 대한 答辯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日海財團의 設立背景 및 資金造成에 관련하여 당초 23億원을 募金하기로 했던 순수한 遺族支援問題가 어떠한 이유로 財團設立에 이르게까지 됐느냐 定款이 바뀔 때마다 設立目的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退任後 政治的 影響力行使를 위한 장소로 설립한 것이 아니냐 基金募金過程에서 強制性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質問이 있었습니다.

또 財團敷地에 대한 綠地規制를 解除指示를 하지 않았느냐 第2迎賓館이 日海財團內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러한 細部問題들이 特定人에 의해 秘密裡에 추진된 이유는 무엇이나 하는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日海財團의 설립은 버마 아웅산慘事後 歸國하는 길에 本人과 同行했던 經濟人들이 北韓의 만행에 울분을 토로하고 이러한 悲劇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분위기속에서 殉國者의 遺家族를 도와야 한다는 共感帶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歸國하자마자 그 당장에 23億원이라는 큰 돈이 모금이 되었으나 全額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稅金의 문제로 遺族支援金이 相當部分 줄어든다는 것과 公益財團을 설립하게 되면 金額을 補助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報告를 접하고 그렇다면 財團設立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遺家族에 대한 弔慰金 分配만을 위해 財團을 설립하는 것이 지나친 便法이 아니냐는 의견과 殉國者의 유지를 받들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버마 아웅산慘劇의 根本原因은 祖國分斷에 기인하는 것이며 分斷을 극복 統一을 앞당기는 것이 犧牲者들의 승고한 소망이자 類似事件을 방지하는 根本治癒策으로 여겨져 자신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는 한 차례의 補助金 지급으로 遺家族 사업을 끝내는 것보다 永續的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이러한 本人의 생각과 財團設立에 관여했던 많은 분들의 뜻이 합치되어 安保 및 統一問題를 연구하는 附設 研究所를 설립하여 統一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遺家族支援事業은 설립 이후 계속 확대되어 왔을 뿐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犧牲者의 유지를 받드는 작업을 한시라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財團이 그 출발은 犧牲者 및 그 遺家族에 대한 慰撫策의 일환으로 구성되고 설립된 만큼 本人도 故人과 그 遺家族들을 위한 일에 정성을 보태고자 5,000萬원을 出捐했습니다.

基金募金은 經濟人 團體들이 주관해서 대상을 정하고 金額을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團側에서는 한해 50億 정도의 豫算을 사용할 셈으로 500億원 정도의 基金造成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本人은 규모가 너무 커 出捐하는 企業에게 부담이 될 것같아 대폭 줄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財團의 事業計劃이 확충된 데다가 일부 企業人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年間 事業費를 모금할 수도 없고 外部支援를 기대할 수도 없으니 일단 基金을 조성한 다음 本格的인 事業展開 단계에서는 基金의 增殖 利子만으로 每年 豫算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3次年度 基金募金을 진행시켜 基金의 總額이 처음 구상보다 커지게 된 것입니다.

財團名稱에 本人의 號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웅산 참변과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持續的으로 遺家族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財團名稱으로 사용하자는 建議가 있어서 이를 승낙했습니다.

또한 그 명칭은 여러가지로 實務者들이 명칭을 구상해 보았으나 大體的으로 동일한 명칭이 많았기 때문에 本人의 號를 따서 그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基金의 寄託과 관련하여 特惠가 있지 않았느냐 또는 이에 협조하지 않은 企業에 대해서 어떤 보복조치가 있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日海財團 募金 自體가 政治資金을 조달하기 위한 目的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었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특히 國際그룹 해체를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不實企業整理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新東亞그룹에서 기부한 35億원이 익명으로 처리된 것은 그 분이 좋은 目的으로 써달라는 뜻을 살려 당시 財團의 事業計劃에 資金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財團基金을 축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資金을 이에 充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항간에 財團과 관련 本人이 退任후 영향력을 행사할 目的을 가지고 있었다는 풍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研究所를 가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 또한 事實無根의 일입니다.

本人은 單任意志를 실천한 前任 大統領으로서 在職時에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研究所를 통하여 國內外 元老들과 교류하는 한편 東歐國등 더 전진하여 以北의 學者들과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民間外交次元에서 國家發展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研究所는 21世紀에 대비하여 統一問題등 國家的으로 중요한 과제를 研究할 國際的인 學者들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統一을 위한 大戰略家와 大理論家등 人材를 양성할 研究機關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結論적으로 遺族을 돕기 위한 순수한 目的에서 本人이 發議했던 財團의 설립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國家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機關으로 성장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研究所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世界的인 研究所가 나는 꼭 필요하다고 현재도 믿고 있습니다. 내가 在任중 모든 國家와의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政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民間次元에서는 오히려 쉽게 관계를 개선시켜 준 예가 있습니다. 在任時에 어떤 中立國인데 第3世界지요 中立國이 아니고... 아주 우리와의 관계가 나쁘고 以北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政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거기에 企業人이 鑿고 들어가서 그 企業人의 힘으로 우리와 그 나라가 수교를 하게 된 예도 있습니다. 또 우리 政府에서는 할 수 없지마는 學者라든지 民間人 레벨에서 교섭을 할 때 이것이 오히려 쉽게 目的을 달성한 예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地政學의 位置가 주변이 세계에서 超強大國입니다.

○委員長 黃明秀 죄송합니다. 지금 證人께서는 여러가지 背景說明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개 이 問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하시면 되십니다. 너무 그렇게 저희가 들을 때도 여러가지 동떨어진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證人 全斗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碩學을 길러낼 수 있는 이러한 研究所가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研究所를 만들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研究所를 만들은 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瑕疵가 있을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시 警護室長이었던 張世東 前室長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司法的인 措置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그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 責任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인 대신에 그러한 罰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 여러분들이 이 研究所를 감독하고 독려해서 우리나라에도 世界的인 研究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키워주셨으면 저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새세대육영회와 새세대심장재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人과 內子는 젊은 시절부터 幼兒教育의 重要性을 깊이 인식하고...

(場內騷亂)

○委員長 黃明秀 조금 말이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證人께서는 答辯을 잠시 중지해주세요.

4黨幹事 나와요.

(「委員長! 警告 좀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그동안에 幹事들은 뭘 했어요!」하는 委員 있음)

가만히 있어요! 줌.

○梁性佑委員 質問의 本質을 회피하고 있던 말이에요. 質問에 대한 答辯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강연들으러 왔어요 지금...

「答辯하고 있잖아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黃明秀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幹事會議에서 저한테 이 議事進行發言을 지금 드릴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 答辯에 대한 警告라 할까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좋게 해석하면 한없이 좋은 것이에요. 千億 아니라 몇千億을 거두어도 이것을 研究所를 만들겠다 뭐 해서 좋게 해석하면 한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가지 募金過程 등등 또 과거에 鄭固永씨나 이분들이 여기 國會에 와서 證言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여기에 동떨어진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듣기가 딱 거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斗煥 감사합니다. 다음 새세대육영회와 새세대심장재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梁性佑委員 委員長! 日海財團에 대한 質問의 本質에 대한 答辯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答辯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補充質疑 때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黃明秀 조용히 하세요. 조금 더 들으세요.

○證人 全斗煥 本人과 內子는 젊은 시절부터 幼兒教育의 重要性을 깊이 인식하고 幼兒教育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부분이 質量 兩面에서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불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大統領이 된 뒤 報告를 받아보니 政府의 豫算事情으로 이 문제를 一舉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있는 분들의 贊助로 이 事業을 일으켜 보자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事業의 취지에 贊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基金이 조성되고 事業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세대心臟財團은 83年 11月 來韓한 레이전 美大統領 夫人 낸시女史가 우리나라 心臟病 어린이 두名을 美國으로 데려가 治療해 준 일이 계기가 되어 國內 心臟病 어린이에 대해서도 社會的 관심이 高調되고 우리의 技術과 費用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生命을 구키자는 輿論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81年 새세대育英會는 創立 당시부터 83년까지 200餘名의 불우한 先天性 心臟病患者의 手術支援事業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착안한 당시 保社部長官과 心臟病 專門醫 등 醫學界 人士들이 育英會에서 기왕에 하고 있던 心臟病患者 支援事業을 확대하는 뜻에서 별도의 財團設立을 건의해 오에 따라 이 事業이 本格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세대育英會나 心臟財團 모두 基金造成 및 管理過程에서 너무 꼼꼼하게 취급하다 보니 基金을 한푼이라도 더 增殖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오히려 經理面에서 의욕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基金 募金過程이나 운영에는 이미 조사를 實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日海財團이나 育英會 心臟財團 등은 本人 內外가 직접 設立했기 때문에 基金造成過程에서 出捐者들에게 反對給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으나 事業趣旨에 贊同한 企業人들의 出捐에 의해서 基金造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本人은 名譽를 걸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近親關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各種 言論媒體에 本人과 本人家族의 名義로 엄청난 財産을 海外에 逃避시켰다는 記事가 報道된 바 있으며 政治圈에서도 이에 대한 論難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本人은 昨年 11月23日 本人의 親·姻戚들이 크고 작은 非理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이 謝過드린 바 있으며 在職中에 親·姻戚管理를 보다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本人의 在任期間中에 있었던 美國産 鋸木輸入 쇠고기 및 石炭輸入과 관련하여 本人의 親·姻戚이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疑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이미 問題化되어 철저히 調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國會 該當常任委員會에서도 調査小委員會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한 바 있으나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國民들도 납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泳鎮委員 輸入쇠고기는 全敬煥씨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常任委員會에서 調査한 사람이요. 常任委員會에서 調査한 결과 드러났어요. 왜 僞證합니까?

○證人 全斗煥 美國 濟州 등에 막대한 財産을 逃避시켜 놓았다는 流言蜚語가 일부 報道 媒體에도 실린 바 있으나 그러한 일은 터무니없는 浪說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政府도 國會要請에 따라 該當國家에 정식으로 調査를 要請한 바 최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우리 政府에 通報해 온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本人 또는 本人 家族名義로 動産 不動産을 불문하고 海外에 財産을 逃避 隱匿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명백히 말씀을 올립니다.

不實企業整理關係입니다. 5共和國 당시에 不實企業 整理와 관련해서 그 배경과 이를 주도한 責任者 그리고……

○金泳鎮委員 委員長! 警告해 주세요. 僞證하고 있어요. 왜 委員長이 가만 있습니까?

○委員長 黃明秀 證人!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各 黨에서 대충 그런 의사도 있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1分 會議中止)

(11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黃明秀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잠시 停會를 해가지고 幹事會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이 125個項의 問項을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質問事項에 대해서 전혀 正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또 거기서 전체적인 의견이 오늘 여기가 證言臺가 아니고 證人의 변명만을 하는 이러한 좌석이 됐다 어떻게 이래서 국민이 납득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고 또 各 黨에서 議事進行發言을 5

分씩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당초 결정한 대로 證人이 성실하고 겸허한 이러한 答辯을 한다면 우리가 議事進行發言 필요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물론 證人이 證言을 한 후에 補充質問을 우리가 20分씩 하기로 했지만 證言에 여러가지 잘못이 있고 허위가 있다면 天生 補充 質疑時間을 연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님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우리 이 聽聞會議場의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고 다소 여러가지 불만이 계시더라도 참으시면서 會議場의 질서를 유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證人께서는 지금 本 委員長이 말한 대로 여러가지 사항을 잘 좀 감안해서 진짜 質問의 핵심을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證言하세요.

○證人 全斗煥 證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不實企業整理에 대한 答辯입니다.

5共和國 당시의 不實企業整理와 관련해서 그 배경과 이를 주도한 責任者 그리고 당시 鄭寅用 財務部長官과 李源祚 銀行監督院長의 介入與否를 밝히고 또 寄附金 또는 政治資金과 관련하여 特惠를 부여하거나 國際그룹이나 大韓船洲 등 不實企業整理에 個人的인 감정이나 政治的인 動機가 개입된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려는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市場經濟體制下에서의 不實企業處理問題는 해당 銀行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大統領으로 취임한 직후 파악한 당시의 國內經濟狀況은 이러한 原論의 인 차원에서 論議되고 이해될 수 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人 長期執權의 구조속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政經憲着의 틀속에서 高速成長을 거듭했던 많은 企業들은 이미 個別銀行으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정도의 엄청난 不實債權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변화하는 國內外的 經濟의 여건 속에서도 合理的 經營을 통해 자신의 生存을 도모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追加的 政策金融 등의 또다른 政府支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個人的으로도 본인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 있었던 韓國 建設業體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報告를 받고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産業의 여러 다른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 狀況에 대한 판단 끝에 본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政府가 적극 개입을 해서 不實企業을 정리하고 産業構造를 合理化시키는 것만이 궁극적으로도 國民經濟의 전체의 부담을 줄이고 韓國經濟의 도약을 성취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不實企業을 정리하는 데는 該當企業을 不渡處理해서 倒産시키는 방법이 가장 原則인 것입니다만 大企業을 倒産시키는 경우 下請企業과 系列企業의 連鎖不渡등으로 인한 大量失職등의 커다란 社會問題가 초래될 수 있고 또한 貸出金 回收不能으로 金融市場 전체가 根本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등 國民經濟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不渡處理 對象企業이 國外에서 상당한 公信用을 갖고 있는 財閥企業일 경우에는 海外市場에서의 韓國企業 전체에 대한 平價切下 또는 信用失墜 등이 염려되어 輸出에 國家的 死活을 걸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不實企業整理에 또다른 방법으로는 該當企業에 계속 追加金融支援을 하여 不渡를 막아 주는 것도 있겠으나 正常化 可能性이 없는 企業에 金融支援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던 不實債權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産業 전반의 體質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社會正義에도 背馳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이러한 副作用을 최소화하는 方案으로서 該當企業도 살리면서 능력있는 第3의 企業을 찾아 引受를 증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만 그 過程이 非公開로 처리되어 많은 의혹이 발생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不實企業을 公開競爭方式으로 정리할 경우 그 不實의 內容이 公開되어 즉각 正常

的인 企業活動이 어려워지게 되는등 不實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며 引受者 選定에도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內部的인 기준을 설정하여 政府에서 引受者를 選定하게 된 것입니다.

引受企業의 결정은 經營能力 財務構造 業種 關聯性 地域緣故등을 綜合적으로 고려하여 財務部長官 主管下에 主去來銀行과의 협의를 거쳐서 産業政策審議會에서 最終決定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最終段階에서 財務部長官이 본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不實企業 整理過程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의혹과 政治的 부담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本人이 몇가지 방안중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었으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被引受企業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을 지니게 되고 整理 節次의 非公開性으로 인해서 일부 의혹이 초래될 可能性도 있었으나 大統領이라는 職責은 이러한 비난보다는 國家經濟란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不實企業引受와 관련한 負債輕減 稅制支援 金融支援 등이 特惠라는 오해는 資産의 몇배나 되는 負債를 인수하는 企業의 負擔을 輕減시키는 조치로써 상당수의 企業이 引受에 소극적임에도 國民經濟的 측면을 고려하여 떠맡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銀行監督院長이 不實企業整理過程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主去來銀行과 財務部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銀行監督院長으로서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質問과 같이 총괄 지휘 등등은 政治的인 오해라 생각이 됩니다.

國際그룹 정리과정에서도 本人은 당시 財務部長官으로부터 國際그룹정리의 필요성과 그 處理對策을 報告받고 이를 裁可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不實企業整理라는 一般原則에 따라 행하여졌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10大財閥에 속하고 있었던 國際그룹의 정리는 政府로서도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海外에서의 韓國企業의 이미지 실추등을 고려하여 不渡處理에 의한 정리보다는 部門別 第3者引受方式을 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國際그룹의 不實은 負債比率이 거의 1,000%에 이르렀고 그 중 상당부분이 短期高利인 完實債를 이용하는 등 負債의 성격 또한 惡性이었다고 報告받았습니다.

政府는 84年 가을부터 85年 2월까지 2,500億원의 資金支援을 함으로써 그룹의 回生에 노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經營狀態는 악화되어 經濟部處의 關係長官들이 數次에 걸쳐 本人에게 回生不能의 報告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大韓船洲의 정리과정도 통상의 정리절차와 마찬가지로 財務部長官의 建議를 承認한 것이며 당시 海運業의 不實規模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여서 船社別로 合理化措置로 不足運營資金支援 自救策 노력 추진등으로 經營正常化를 모색하였으나 大韓船洲의 경우 第1次 海運合理化措置시 금융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不實規模나 당시 海運市場 여건등으로 보아 自體正常化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整理對象에 포함시켰습니다.

韓進海運에 引受시키는 과정에서 朝陽상선과 경합시킴으로써 引受條件을 유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不實企業整理는 당시 경제여건상 企業 및 産業의 구조조정으로 일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절차의 非公開 被引受企業의 불만등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코 個人的인 私心이 國家 政策決定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돌이켜 생각하면 또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被引受企業들이 당시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과 아울러 國民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위 李哲熙 張玲子어음사기사건과 明星그룹 倒産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모두 철저한 수사와 裁判이 끝났으며 그 과정에서 眞相이 상세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李哲熙 張玲子事件이 政治資金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李哲熙 張玲子 이 두사람과는 一面識조차 없었던 사

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리고 明星그룹의 해체가 本人이 稅務查察을 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물으셨으나 明星그룹은 명성사건 발생과 함께 代表者가 구속되고 대부분의 資産이 適法節次를 거쳐 처리됨으로써 自動的으로 해체된 것이지 稅務查察로 해체된 것은 아니었으며 本人이 稅務查察을 지시한 바 없습니다.

다만 明星그룹 자체는 國家經濟의 건지에서 이를 韓國化藥에 인수시키기로 했다고 알고 있으나 그 引受條件등 具體的인 내용에 대해서는 實務部處에서 適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第2民航을 錦湖그룹에 認可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第2民航問題가 제기된 것은 第5共和國 初期부터 國際交易의 증대와 海外旅行自由化施策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87年度 初부터 交通部에서 實務檢討에 착수 그 해 11月 航空社 二元化 方針을 報告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運送業 經驗이 풍부하고 資本力이 건실한 湖南地域 企業 중에서 對象業體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檢討한 交通部가 이미 85年頃 부터 航空運輸事業을 추진하고 87년부터 韓國空港터미널株式會社의 일부를 인수하는 등 航空 專門業體로서의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고 있는 錦湖그룹에 第2民航 設立을 許可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長官을 통해 建議해서 이를 裁可했습니다.

裁可時期가 본인의 退任 직전에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同認可 문제는 87年初부터 계속 檢討되어 왔던 것으로 오히려 늦게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며 본인의 在任 중에 시작한 일로서 在任 중에 중결짓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裁可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社會 일각에서는 錦湖株式會社를 贈與 받았다는 의혹도 있으나 그와 같은 오해는 전혀 事實無根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原電 11·12號基 導入 및 F20 「노드름」 航空機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原電 11·12號基 導入과 관련한 施工業者의 「로비」說은 競爭脫落會社와 관련이 있다고 보

며 워낙 原電落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原電選定은 動力資源部가 韓國電力의 主管下에 關係專門家 150餘名으로 구성된 入札評價팀이 다양한 조건을 比較 檢討한 결과 조건이 가장 유리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空軍 主力 航空機 選定事業은 空軍의 戰鬥力 향상과 航空産業育成의 측면에서 지난 83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美國의 「제너럴 다이내믹」사의 F-16 戰鬥機와 「노드롭」의 F-20이 경합하게 되었는바 政府는 共同生産의 經濟的 技術的 實益을 확보하기 위해서 國內生産業體를 선정하여 美國業體와 共同生産 타당성 여부를 檢討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84년10월 水原과 85년5월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F-20機가 試驗飛行 과정 중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있어서 「노드롭」사가 F-20의 開發을 중단함에 따라 政府는 F-20을 檢討 對象機 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資金 운운하며 의혹이 있었는바 이는 본인 또는 政府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일입니다.

다음은 골프場 許可와 관련하여 政治資金授受等 問題點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內認可 골프場 중 일부 企業이 誠金 基金 등을 낸 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理解不足에서 오는 낭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內認可라는 것은 行政의 合目的인 수행을 위해 쓰고 있는 行政慣行인 것입니다. 골프場 內認可 권한은 交通部長官에게 있으며 大統領에게는 事前 또는 事後에 報告하는 것입니다. 일부 골프場 認可 과정에서 수십億圓의 金額이 謝禮費條로 오고 갔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다면 골프場에 대한 社會的인 인식을 고려해서 公益과 社會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조건은 地域別로 公益施設을 建設토록 하거나 獎學金 또는 獎學基金을 내도록 하거나 總 골프場 建設所要資金의 10% 이상을 國民觀光地 조성에 쓰거나 그때 상응하는 基金을 내도록 한 것이 잘못 이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골프場을 設立한 企業 중에는 새마을誠金등 公益法人에 기부한 사례도 있고 地方自治團體의 會館 設立基金을 기부한 企業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寄附行爲가 政治資金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인식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으며 政治資金授受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三淸教育 公職者淨化 言論人 解職 및 言論統廢合 등 80年 당시 國家保衛非對策委員會가 추진한 措置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三淸教育은 常習的이고 組織的인 暴力 恐嚇 詐欺 麻藥 人身賣買 등 各種 社會惡을 제거하여 社會紀綱을 확립함으로써 國家의 危機狀況을 극복하려는 時局 收拾對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 事業은 80年8월 國保委의 社會惡一掃特別措置로 발표되었으며 戒嚴司令部는 戒嚴布告令 第13號에 의거하여 組織暴力輩 등을 檢擧 그 중 일부는 拘束 立件하였고 그 외에 대부분은 두 週 내지 네 週 정도의 醇化教育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民生治安을 확립하고 社會安定을 기하는 데 기여한 사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三淸教育은 당시 社會混亂을 푼타 난무하고 있던 癩疾的인 常習犯에 대하여 豫防의次元에서 特別教育을 통해 矯正함으로써 民生安定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社會惡이 國民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不安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法治主義의 盲點을 이용하여 法網을 교묘히 피해 나감으로써 通常的方法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성실한 대다수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 社會安定을 시급히 回復시킨다는 목적에서 이러한 計劃을 추진하다 보니까 施行過程에서 선의의 被害者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점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해에 있었던 公職者 淨化措置는 利權介入등 腐敗公職者와 公私生活에서 支辨 받는 자 등을 整理함으로써 公職紀綱을 바로잡아서 政府에 대한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對象者 選定은 司正機關의 資料와 各 部處別 對內外 諜報와 輿論蒐集을 통해 엄밀히 審査토록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情實 또는 個人的 感情에 의해 처리된 事例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합니다.

(黃明秀委員長, 姜信玉幹事와 司會交代)

言論人 解職措置 또한 社會各界 淨化措置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對象은 各 言論社에서 自律적으로 選定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적으로는 戒嚴當局의 言論關係擔當官들이 상당한 影響力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言論統廢合은 健全言論을 育成한다는 차원에서 그 전부터 몇 차례 建議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言論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신중히 檢討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堅持했으나 결국 80年11月 言論統廢合計劃을 承認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당시 言論界에는 소위 사이비 記者 사이비 言論 등 問題點과 弊端이 적지 않아 이러한 問題點을 是正하기 위해서 衝擊的 措置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視角에서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80年 당시 있었던 일로서 10·26 이후 事件搜查過程에서 靑瓦臺 秘書室에서 발견된 資金問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總 9億6,000萬원 중 2億원은 鄭昇和 당시 陸軍參謀總長에게 5,000萬원은 盧載鉉 당시 國防長官에게 주어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1億원은 당시 戒嚴司令官의 承認을 받아서 合同搜查本部의 搜查費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遺族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不正蓄財 還收財産處理는 適法節次에 의하여 農漁村後繼者育成基金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獻納額에 差異가 있는 것은 還收財産 중 일부는 現金이 아닌 書畫 土地 등 實物資産으로서 이에 대한 評價額의 差異에 起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위 10·27 佛敎法難으로 알려진 佛敎界에 대한 淨化는 社會全般에 대한 淨化措置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特定宗教에 대한 彈壓으로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은 淨化措置의 일환이기는 하나 本人의 大統領 就任後 몹시 바쁜 期間이었으므로 중대한 事案인데도 執行機關을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在任期間중 政治資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年代에는 執政黨 幹部中心으로 政治資金을 調達管理함으로써 政治圈의 腐敗가 輿論化되는 등 副作用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就任初부터 깨끗한 政治를 위해 나름대로의 의욕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在任期間중에 執政黨이 깨끗한 政治를 具現하는데 앞장서도록 강조해 왔으며 그 결과 在任期間중에 黨의 高位幹部중에서 政治資金과 관련된 物議가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기억됩니다.

本人은 企業 또는 個人으로부터 政治資金을 寄附받은 바 있으나 國庫補助擴大 選管委 寄託金 後援會를 통한 募金 黨員의 黨費納付 등 外部로부터 政治資金을 調達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民正黨 創黨時부터 自立政黨을 표방하여 평소 黨運營에 필요한 經費는 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했으며 필요한 資金을 가끔 支援한 적이 있으나 그 金額은 생각하는 것만큼 큰 규모가 아니었으며 本人이 定期的으로 一定額을 支援한 사실은 없습니다.

質疑의 내용중에 兩大選舉와 관련한 資金問題도 있으나 어느 黨을 막론하고 選舉때 選舉資金을 募金하고 支援을 받은 것은 秘密일 수도 없는 公知의 사실인 것입니다.

候補者間的 過熱競爭과 有權者의 期待心理가 높은 우리의 選舉風土에서 本人은 政治資金에 대한 理想과 現實間的 乖離에 곤혹스러움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며 이러한 고충은 與野 모두가 비슷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與野를 막론하고 政治資金의 內幕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誇張되게 알려진 측면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政治資金에 대한 論難은 자칫 政治不信만을 深化시킬 우려가 큰 매우 敏感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民正黨 이외에 特定人에게 本人이 政治資金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質問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平和的으로 政權을 引繼해 주고 나온 어떤 統治者도 政治資金의 내역을 公開하여 日可曰否하는 事例를 본 적이 없습니다.

本人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기 싫다기

보다는 입을 열게 됨으로써 過去清算의 마무리가 아니라 清算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世紀末을 맞이하는 時點에서 과거의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되거나 앓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과 내일을 重視하는 委員 여러분과 國民 여러분이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學園騷擾와 관련된 일부 大學生에 대하여 強制徵集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와 關係機關對策會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兵役法上 大學生은 스스로 원하면 卒業時까지 徵集을 연기할 수 있지만 大學을 그만두거나 休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기혜택은 받을 수 없으므로 休學한 大學生은 一般國民과 마찬가지로 入隊하여야 하며 意識化된 大學生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意識化된 學生이 退學된 경우 徵集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強制徵集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入隊한 사람들은 당연히 軍部隊에서 다른 兵士들과 함께 똑같이 兵營生活를 영위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중 몇 명이 死亡하자 死亡事實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大統領인 本人이 兵營內에서 死亡者가 發生할 때마다 報告받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당시 本人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本人의 경험에 의하면 軍에서도 一般社會와 똑같이 變死事件이 發生하면 搜查機關이 그 事件을 搜查하여 真相을 추적하고 犯法行爲가 있거나 指揮官의 과실이 드러나면 依法措置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事件들은 각각 적절한 措置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關係機關對策會議라는 것은 公式의 政府機構가 아니라 國家의 중요한 懸案이나 業務內容이 여러 部處와 관련되는 事案인 경우 關聯部處의 責任者 또는 實務者들이 모여 主務部署 責任者主管下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對策을 協議하는 非常設會議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會議는 議決 또는 執行機構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한 모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會議는 參席對象者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案件과 관련이 있는 部處의 公務員들이 그때그때 참석하는 것으로서 大統領이 會議召集을 指示하거나 參席者를 指定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北韓의 金剛山「댐」建設에 대한 對應「댐」으로 平和「댐」이 그 자체의 위험성 보다는 政權安保의 次元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平和의 「댐」은 北韓의 金剛山「댐」建設에 따른 國家安保上的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施設이었으며 당시로서는 對應「댐」建設이 政府가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對應方案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84年 9月頃 北韓에서 北韓江 上流에 80萬 KW 규모의 水力發電所를 建設한다는 사실이 로동신문과 平壤放送 등을 통해 수차 報道된 바 있어 저들이 公表한 發電容量을 근거로 貯水量을 逆算해 본 技術障의 檢討結果 最大貯水量 200億t에 달하는 超大型「댐」을 建設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北韓의 이러한 大規模「댐」建設은 下流에 있는 우리側의 水資源 및 發電量減少를 초래할 뿐 아니라 人爲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자연붕괴될 경우에 10餘時間後에는 首都圈 일대가 대부분 수몰되는 등 우리 國民의 生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악랄한 反對와 妨害工作을 피오던 北韓으로서는 무슨 일을 저지를 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음은 國民 여러분도 상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86年 10月頃 수차례에 걸쳐 北韓側에 國際慣例를 무시한 金剛山「댐」建設을 中止하도록 촉구하였으나 北韓側이 이를 무시하고 工事를 강행하여 86年 11月頃 國家保衛를 위한 自衛措置로서 水攻을 防止할 수 있는 對應「댐」을 建設하기로 決定하고 國民들의 誠金으로 建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平和의 「댐」은 당시 政府의 情報판단에 따른 최선의 對應方案이었으며 政權維持 차원에서 金剛山「댐」의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다면 友邦이 제

공해 준 航空寫眞 등 여러가지 情報資料에 비추어 이 「댐」은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築造중이었음이 확실하며 그뒤 北韓이 「댐」工事を 中斷한 것은 우리가 平和의 「댐」을 築造함으로써 저들의 意圖가 事前封鎖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國民 여러분!

6·29宣言이라든가 後繼構圖등 執權與黨內部の 문제와 統治行爲 등에 관한 質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時代 어느 政治社會를 막론하고 裏面史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때그때 속속들이 알려지는 事例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29宣言은 그것이 담고 있는 內容이 그동안 어떻게 實現되었으며 또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政治發展과 國家利益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경위나 背景을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는 일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政治裏面의 얘기들은 現實政治에 민감한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것이라는 確信이 서는 훗날 回顧錄 등을 통하여 國民 여러분에게 소상히 밝혀드릴 것을 約束하는 것으로 國民 여러분 諒解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럴바에는 나오지말지 뭐하러 나왔어요!」 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이상으로 다소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5共特委關聯 質問에 대한 答辯을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場內騷亂)

○委員長代理 姜信玉 가만이 있어봐요.

證人! 좀…… 지금현재……

○張石和委員 證言拒否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證言拒否한다고 本人이 指示를 했잖아!」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요!

(場內騷亂)

가만히 있어봐요! 證人은 지금 5共和國에 있어서의 政治權力型非理 訊問事項에 對答을 다 마친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證人 全斗煥 예.

○委員長代理 姜信玉 우선 제가 몇 個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第一教會彈壓暴力事件에 대해서 전연 言及이 없었고 그 다음에 間諜操作事件에 대해서 質問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言及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訊問事項에도 다 그대로 들어있는 것인데 우선 왜 對答 안하시는지?

(「그뿐만이 아닙니다」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가만히 있어요. 우선 對答 전연 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證人 全斗煥 제가 序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場內騷亂)

○委員長代理 姜信玉 우선 좀 對答 들으세요.

○證人 全斗煥 序頭에서도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나라의 大統領은 無限責任을 지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序頭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實務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實務者에 의해서 執行이 된 것은 大統領에게 報告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報告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大統領으로서 答辯할 수 있는 部分을 추려서 總括的으로 答辯을 올리겠다 이렇게 序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를들면 間諜造作事件이다 이런 것은 實務者들이 造作을 했든지 안했든지 이런 內容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答辯할 立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答辯이 時日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資料蒐集에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物理的으로 오늘이 그믐날인데 여러분들이 歸鄉活動도 하시고 이래야 될텐데 저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大統領으로서 資料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確信이 없기 때문에 答辯을 못드린다고 事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性佑委員 質問內容에 答辯을 하셔야지요.

(場內騷亂)

○金東周委員 讓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姜信玉幹事, 黃明秀委員長과 司會交代)

○梁性佑委員 委員長! 말씀 좀 해보세요.

○委員長 黃明秀 가만히 계세요. 조금 계세요. 지금 各黨에서 民正黨은 잘 모르겠지만

野 3黨에서 議事進行發言 요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證人한테 주의를 환기시켰지마는 전혀 正諷에 맞는 얘기는 答辯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과거 李基澤 5共委員長 그 당시에 數個月에 걸쳐가지고 우리 委員들이 그야말로 피나는 이러한 노력을 해서 전부 調査를 했어요. 調査를 해가지고 이런 文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野黨側만 아니라 民正黨과 더불어 4黨이 합의해서 이런 質問書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전혀 하나의 答辯은 전부 회피해버리고 솔직한 얘기로 여기가 證人이 그간에 잘했다는 무슨 宣傳場같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本委員長은...

(場內騷亂)

가만히 있어요. 本委員長은 잠시 停會를 宣布하고서.....

(「委員長! 司會나 보시오」하는 委員 있음)

(「그것이 사실 아니오」하는 委員 있음)

가만히 있어요.

본인은 잠시 이 5共問題의 答辯이 끝나기 前에 停會를 宣布하고서 幹事會議를 소집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7分 會議中止)

(14時5分 繼續開議)

○委員長 黃明秀 그러면 지금부터 午後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會議를 續開하기 前에 우리가 午前中에 幹事會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幹事會議의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報告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李海瓊委員 證人을 出席시켜놓고 하세요!

○委員長 黃明秀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午前中에 證人께서 本人은 어떠한 작심으로 證言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國民들이 지금 현재 各黨으로 電話가 쇄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만일에 聽聞會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도 되겠지만 그런 電話가 지금 쇄도하고 있고 또 民主黨 平民黨

共和黨할 것 없이 野3黨이 심지어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聽聞會를 계속하느냐 이러한 강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幹事會議에서 우리가 與野가 합의보기를 우선 이 會議가 시작되면 各黨에서 議事進行發言을 約 5分 前後로 해서 한 분석 드리고 또 委員長이 5共答辯에서 대충 따져도 25·6個 答辯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委員長이 指示를 하고 이 答辯은 光州問題가 끝난 후에 補充質疑答辯時에 같이 答辯을 듣기로 대충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한 委員들은 어떤 말씀이 계신고 하니 補充質疑도 그렇고 정이런 식의 答辯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一問一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강하게 提起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會議運營上 많은 지장을 초래 할 수가 있다. 때문에 우리가 일응 5共光州特委를 다 마친 후에 다시 幹事會議를 소집해서 補充質問을 우리가 어제 合意 보기는 한 黨에 한 분석 했지만 다시 이것을 논의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대충 合意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證인이 왜 안나옵니까?

○金泳鎮委員 證인이 나와야 합니다.

○委員長 黃明秀 그것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事進行發言은 주로 의사를 진행하는 이 委員長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담아가지고 證人한테 얘기할 것은 하고 또 本人이 잘못되어서 議事進行을 잘못한다면 本人이 또 알아서 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金泳鎮委員 證인이 나와야 돼요. 委員長! 왜 委員長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證人 出席시켜요.

○李海瓊委員 證人을 出席시켜세요.

○權海玉委員 會議를 진행하세요.

(場內騷亂)

○委員長 黃明秀 가만 있어요. 이것도 4黨에서 완전 合意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議事進行發言에 들어가겠습니다. 平民黨의 金令培委員 나오셔서 發言해 주세요.

○金泳錫委員 거짓말 시키기로 '合意했어요?'

○崔洛道委員 會議 도중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盧武鉉委員 議事進行發言을 證人이 들어야 합니다.

(場內騷亂)

(「各黨間의 合意事項을 지킵시다」하는 委員 있음)

○金令培委員 平和民主黨 金令培委員입니다.

合意에 따라서 먼저 本委員이 議事進行發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議事進行發言을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 반드시 全斗煥證人이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本委員이 하고자 하는 議事進行發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委員長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全斗煥證人이 이 證言席에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要請합니다.

證人이 나온 다음에 發言을 계속하겠습니다. 要請합니다.

(「合意대로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거짓말 合意가 合意인가?」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委員長 黃明秀 저 어떻습니까. 金令培委員 말이지요.

일단 우리가 幹事會議에서 合意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 合意가 어떠한 「를」에 다소 어긋나는 점도 있겠지만 일단 合意는 보았는데 일단 이 정신을 한 번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會議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支障이 없도록끔 되는 것도 같고 해서 정 그것을 또 요구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幹事會議를 소집해서 論議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어머세요?

(「委員長! 合意대로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幹事會議 다시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證人 없는 聽聞會가 어디 있어요?」는 委員 있음)

各黨 幹事나오세요.

(場內騷亂)

지금 4黨幹事會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會議때 平民黨에서도 文東煥委員長도 參席을

하시고 또 幹事님도 한 분이 參席을 해서 한時30분까지 會議場에 와라 그래서 35분경에 會議를 하자 이렇게 合意를 보았습니다.

지금 幹事會議를 한 결과 대충 다소 어떠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幹事會議에서 合意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諒解하시고 金令培委員 議事進行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令培委員 本委員은 委員長에게 다시 한번 要請합니다.

오늘 이 全斗煥證人에 대한 證言聽取가 지난날의 쓰라린 歷史를 清算하고 國民과 더불어 용서와 화해의 場이 되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證人의 證言內容과 태도 자세 이런 면에서 오히려 國民의 激憤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반드시 證人이 이 자리에 나와서 本委員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야만 國民이 기대하는 聽聞會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委員長에게 다시 要請하건대 全斗煥證人이 證言席에 나와 앉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本委員은 아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내려보내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뭐 하는 거요?」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委員長 黃明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證人이 설사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金令培委員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꼭 證人한테 전달되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대로 진행하고 本人이 證人한테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金令培委員 직접 들어야지 왜 전달을 합니까?

(「停會합시다. 停會해 가지고 다시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왜 證人을 過剩保護 하는 거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黃明秀 조용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證人을 過剩保護해야 할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金令培委員이 웬만하면 諒解하고 우선 議事進行 해 주세요.

○金令培委員 委員長에게 다시 한번 要請드립니다.

全斗煥證人이 證言席에 나와 앉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幹事는 贊成 안 했어요」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委員長 黃明秀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는 會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17分 會議中止)

(15時18分 繼續開議)

○委員長 黃明秀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합니다.

金令培委員께서 議事進行發言을 하시기 전에 本 委員長이 幹事會議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會議가 너무 지연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4黨幹事들이 합의를 해서 全斗煥證人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議事進行發言을 한다고 할 때에 사실은 3野黨은 反對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與黨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野黨이 여러가지 熟議한 끝에 議事進行發言은 주로 議長한테 議事를 進行하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證人이 안 나와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의사가 모아졌습니다.

그 후에 金令培委員께서 議事進行發言을 얻어서 가지고 나오셔서 證人을 證人席에 불러 내지 않으면 나는 發言을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議事進行이 상당히 곤란해가지고 다시 4黨幹事會議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專門委員 두 분을 證人側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張慶宇委員이 李亮雨法定代理人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靑瓦臺 領袖會談이 4者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런 합의이기 때문에 가까이 國會에 出席했다 證言臺에 섰다 그런데 지금 현

재 3黨에서는 證言臺에 나오라고 합의했고 與黨에서는 지금 현재 反對했다. 그러면 4黨이 완전히 合意精神이 아니지 않느냐 때문에 議事進行發言하는 동안에는 못 나오겠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또 여러가지로 지금 논의가 될 때 野3黨은 하도 각 黨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證人이 꼭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委員長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두 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證人이 議事進行發言中에는 못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張慶宇委員 與野 合意가 되어야지 나옵니다.

○辛再基委員 合意대로 진행을 하면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黃明秀 그러면 金令培委員 發言을 계속 하세요.

○金令培委員 發言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委員長께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本委員이 證人이 證人席에 앉아야 되겠다 하는 요청을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이 聽聞會가 停會되었다가 續開할 때에는 證人도 당연히 證人席에 출석한 다음에 續開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常任委員會나 또는 지난 5共特委나 光州特委에서 聽聞會를 할때 前例가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오늘 全斗煥證人만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續開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證言 가운데에도 國民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證言內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때 이 國會가 또 兩特委가 連席을 해서 全斗煥證人의 證言을 듣는 입장에서 자칫 하면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는 목적에서 과오를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에 따라서 國民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분을 사게되는 분위기로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特委 모든 委員들이 오히려 證人에게보다는 國會議員 전체가 國民들의 지

판을 받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분위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本委員이 반드시 證人이 證人席에 온 다음에 發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委員님들과 또 지금 放送을 통해서 이 장면을 시청하고 계시는 國民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證言 도중이나 또 議事進行 發言 신청해서 나온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하면 停會하고 幹事會議한다고 나가 가지고 불과 한 10分정도면 협의가 끝날 것을 30분이상씩 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자칫하면 兇斗煥證人이 證言 할 수 있는 時間을 그렇게 소비해 버리는 결과 다시 말하면 辱을 범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할까 심히 걱정되는 나머지 저는 發言을 계속할까 합니다. 다만 委員長에게 묻습니다.

本委員이 발언하는 것이 구내방송으로 兇斗煥證人이 대기실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委員長 黃明秀 金委員! 내가 조금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幹事會議에서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들어올 때 平民黨幹事側에서도 黃明秀委員長이 그 사실대로 證人이 여기에 못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金委員이 그런 發言을 안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金命培委員 委員長! 司會를 좀 똑똑히 보세요!

내 얘기는 지금 本委員의 發言이 구내방송으로 證人이 대기실에서 듣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黃明秀 本會議場 전체에 유선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金命培委員 그러니까 證人也 듣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委員長 黃明秀 本廳이 다 들으면 證人也 듣고 있겠지요.

○金命培委員 그것을 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委員長께서도 종전에 약속한

대로 本委員의 發言內容을 證人에게 전달해 주기를 믿으면서 제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國民에게 말씀드리거니와 계속 證人의 출석을 요구하고 發言을 하지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證人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또 證人이 앞으로 證言을 통해서 僞證을 할 때 또 뉘우치는 자세가 보이지 않을 때 國民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심정에서 本委員은 發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議事進行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 平和民主黨에서는 證人의 선서는 관례대로 오른 손을 들고 宣誓書를 낭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補充質問에 있어서도 一問一答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진행이 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幹事會議에서 관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國民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이러한 청문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委員들 다 보이시지만 과거에 증인으로 나오면 證人席이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證人席이라는 표시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前職大統領에 대한 예우다 하는 측면에서 與黨側에서 하는 여러가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本委員 감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록 前職大統領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다른 證人과 똑같은 입장 똑같은 자세로 國民 앞에 또 이 國會에서 證言을 해줄 때 오히려 國民이 동정하고 또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긍정해 주고 오히려 그분에게 과오가 있으면 용서해주는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리라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예우다 하는 면에서 아까 어떤 委員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잉보호라고 하는 이러한 인상을 보이기 때문에 兇斗煥證人에게 오히려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兇斗煥證人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證人也 얘기했다시피 오늘은 89年度를 넘기는

마지막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넘기는 마지막 날일 뿐만 아니라 80年代 다시 말하면 10年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0年 동안은 全斗煥證人이 중심이 되어서 군부세력이 정권을 강탈하고 또 民主主義를 짓밟고 民權을 짓밟고 독재의 극치를 이루었던 80年代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모든 집권과정의 문제 또 집권 도중의 문제 이것을 몽땅 씻어내고 국민과 더불어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용서 하는 이런 분위기로써 90年代를 맞고 새로운 政治文化를 창조하자고 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全斗煥證人의 證言內容을 보면 5共特委에서 미리 보낸 質問書 內容에 절반도 못 미치게 答辯했습니다. 대부분을 答辯에서 회피했습니다. 答辯한 내용중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세가 아니라 과오를 은폐하거나 합리화시키려는 허위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듣건대 全斗煥證人은 百潭寺에서 100日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證人은 1年이 넘도록 수도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00日 기도를 하고 수도생활을 했다고 하면 진실로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사과하는 이런 내용의 證言이 됐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百潭寺에 있는 동안에 몇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손 봐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증오심만 잔뜩 질러 안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權海玉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5分 지났습니다. 이것은 議事進行에 대한 發言이 아니고...

○金令培委員 이렇게 허위증언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日海財團 心臟財團 育英會基金 募金過程에서 강제성 이 문제를 얘기를 안했어요. 이것은 本委員이 지적하건대 昨年 11月23日 全斗煥證人이 百潭寺로 떠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大統領夫人이 직접 말아서 한다는 사실이 企業人들에게 無言의 압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잘못 내지는 사과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까마는 日海財團問題가 그렇습니다.

○委員長 黃明秀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發言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원칙이지만 지금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金令培委員 委員長께서 前後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日海財團도 당초의 설립취지대로 아웅산사건 유가족을 돕고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일에 그쳐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百潭寺로 갈 때는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와서는 오히려 후회하기는 커녕 日海財團 研究財團을 만든 것을 잘한 것인 양 또 여러분 委員들께서도 이 財團을 잘 육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당당한 얘기를 한다 이말이에요.

이러한 證言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래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만큼 앞으로 이것을 미루어 볼 때...

○委員長 黃明秀 發言 중지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金令培委員 委員長 들어보세요!
앞으로 光州特委所管 答辯이 있습니다.

이 때에 12·12事變 5·17全國戒嚴擴大 5·18光州國民虐殺事件 발표명령자가 누구냐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全斗煥證人은 國民들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커녕 영원히 歷史 속에서 용서 받을 수 없는 證人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은 이런 점을 주의시켜서 다시는 虛偽證言이 없도록 議事進行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黃明秀 그만해요! 그만해요!

○金令培委員 됐습니다. 證人에게 本委員이 몇가지 얘기한 것을 주지시켜서 좀 더 國民으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는 證言이 될 수 있도록 委員長이 議事進行을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議事進行發言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委員長 黃明秀 지금 金壽培委員이 먼저 서두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에 날을 필요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 本 議事進行發言에 들어가서 장장 15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分 전후... 전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하시면 議事進行이 잘 안됩니다. 앞으로는 議事進行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民主黨의 金東周委員 나오셔서 議事進行 發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그리고 與野委員 여러분!

저는 이 歷史的인 第5共和國의 責任者인 全斗煥 前大統領이 이 자리에서 國民 앞에 또 兩特委 委員들 앞에 證言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처럼 盧泰愚大統領과 우리 野3黨 總裁들이 12月15日날 國民大和合 차원에서 또 금년내에 지긋지긋한 5共을 청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野團이 대폭 양보를 하고 오늘이 聽聞會를 하게 된 것입니다. 本委員은 솔직히 이야기 해서 政治指導者들의 이 결정이 個人的으로는 불만스럽고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5共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政黨人이기 때문에 저는 승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全斗煥 前大統領의 證人席에서의 答辯은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데도 이렇게 國民을 속이고 우리 委員들을 속이는 이런 僞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本委員은 議事進行發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몇가지 全斗煥 前大統領의 證言에 대해서 僞證部分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解職公務員에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가 社會淨化次元에서 우물쭈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解職公務員 양심적인 教授 記者 그리고 公職者들이 8,877명이나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그 職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政府와 우리 與野는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예회복과 補償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자기가 政權을 잡기 위해서 저지른 실수를 社會淨化次元에서 했다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僞證이나

이 말입니다.

다음에 三淸教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社會混亂을 피하고 法網을 묘하게 피하는 사람들에게 特殊訓練을 시켰다 하는 정도로 答辯했습니다. 제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軍部隊에서 教育을 받다가 죽은 사람 10명을 포함해서 54명이 죽었습니다. 三淸教育 後遺證 死亡이 397명입니다. 지금 현재 영구히 장애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2,768명입니다. 이 엄청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여기에서 特殊訓練을 시켰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張玲子·李哲熙事件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張玲子에 대해서 一面識도 없다 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張玲子는 李圭光씨의 처제입니다. 本委員이 듣기로는 분명히 자기가 軍部に 있을 때 朴正熙 前大統領에게 警護室次官補로 가게끔 다리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張玲子야! 一面識도 없다 이런 식의 僞證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 농촌에서 많은 農民後繼者가 지금 사기꾼이 되고 우리 농촌을 이렇게 황폐화시킨 소 輸入에 대해서 말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친동생 바로 새마을中央本部 會長이라는 全敬煥씨가 그 책임을 지고 刑務所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우리가 國會에서 넘어간다면 우리 國民들과 여기 앉은 與野委員 밤잠을 자지 않고 조사한 特委 委員들 명색이 한 시대를 책임지겠다는 政治人들을 國民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저는 委員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日海財團 調査나 大統領 權力型 非理 계가 小委員 長입니다. 철저히 調査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日海財團에서 명색이 598億5,000萬 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張世東證人이나 혹은 鄭周永 崔順連 金麟培 李鍾元 崔淳永 李堉鎔 등의 證言에 의하면 어쩔 수 없어 강제적으로 냈고 또 직접 全斗煥 前大統領 證人 자신이 거뒀다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權力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僞證

입니다.

또 하나 新世代心藏財團과 育英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公益法人에 있어서 그 경리는 공개가 되어야 되고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日海財團 장부도 설립하고 난 3년후에 6·29宣言 이후에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前 法務部長官 李鍾元 監事로부터 우리가 聽聞會에서 받았었다 이 말이야! 누가 偽證이나 이 말입니다. 장부도 조작하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이 銀行에 가서 같이 밤새도록 調査했지 않습니까? 記名의 기부금 등등은 틀림 없이 이것 다 全斗煥 前大統領이 자기 政治資金으로 끌려고 하다가 우연히 빵구가 나니까 우리가 調査해서 들통이 나니까 이렇게 조작한 것이다 이말입니다.

또 하나 新世代育英會 心藏財團은 자기 부인이 했기 때문에 경리가 틀림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무기명 비밀로 이 財團의 장부에 기재되지도 않고 靑瓦臺에서 證人과 자기 부인인 李順子씨가 자기 개인 돈인양으로 쓴 것을 갖다가, 경리에 부정이 없다 또 철저히 했다 이렇게 證言을 거짓말로 시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月27日 佛敎法難事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10月27日날 이 양반은 佛敎가 軍事政權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승려 153名을 잡아다가 강제로 구타하고 고문했습니다. 200億6,000萬원이란 돈은 佛敎에서 不法 不正의인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그 당시에 戒嚴司에서는 발표했습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분명히 200億6,000萬원이란 돈은 政府에서 받아서 佛敎基金에 넣은 사실도 없어! 분명히 이것은 宗教的인 彈壓이예요. 이런 엄청난 짓을 해 놓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偽證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委員長님에게 特委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國會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또 만일에 이런 식으로의 聽聞會 같은 역사를 왜곡시키고 政治圈 전체는 國民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本委員의 議事進行을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金東周委員께서는 10分 시간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新民主共和黨의 尹在基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在基委員 忠南 公州出身 共和黨所屬 尹在基委員입니다.

政治의 초년생으로서 國民의 무서운 힘이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前職大統領도 國民 앞에 평등한 民主市民으로 證言會에 선서를 한 歷史性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全證人의 前非를 뇌우치는 證言을 듣게 되면 國民은 동정을 보낼 수도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政治圈은 오늘 90年代를 희망차게 맞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열자는 그런 大妥協의 場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되도록 미래를 밝게 열고자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全證人의 證言을 시청한 全國民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음을 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特委가 全證人 證言의 청취를 끝으로 5共清算과 光州民主化를 규명해서 4黨 總裁의 합의에 따라 모든 것을 매듭 짓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特委는 오늘 全證人의 證言으로 80年代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코자 했던 것입니다.

全證人은 모든 잘못이 本人의 不德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모든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과 변명만으로 일관한 證言을 하고 말았습니다.

中國 故事에 人間에게는 사심이 있으면 하늘이 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大統領이 되려는 사심 그 속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大統領으로서의 공명심에서 많은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모든 委員들이 같이 느꼈다시피 前職大統領을 하고 이 자리에 證人으로 선 모습의 초췌함을 보고 연민의 정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민족을 統治키 위해서는 바른 政治哲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政治哲學은 民族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民族을 領導할 統治哲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5共和國이 軍의 부하에 대한 統率力만을 바탕으로 政權이 창출되었기에 時代錯誤

가 있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또한 國民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領導力 아닌 힘과 공포 政治資金에 의한 유혹으로 國民을 통솔한 強壓政治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本委員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全 前大統領은 政治資金 募金過程에서 이상과 현실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늘 全 前大統領의 오늘의 證言의 歷史的 意義는 溫故而知新的의 옛 格言에 따라 어제의 잘못을 뒤우치고 새로운 政治의 章을 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겹쳐히 과거를 자성하면서 희망찬 내일의 政治風土를 열자는 것입니다.

中國의 聖人 孔子는 政治에 있어 政治의 절대 세가지 요소가 있는바 첫째는 信이라고 그렸습니다. 둘째는 國家安保를 위한 兵이라고 그렸습니다. 셋째는 饘이 필요한 먹을 食이라고 그렸습니다.

이 모든 것중에 최후도 버릴 수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全體人의 證言을 청취함에 있어 우선 全斗煥證人이 證人 본인의 歷史속에서 이를 깊이 인식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國民에게 털어 놓아서 이제 거짓과 변명을 통한 政治의 章의 幕을 내려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全斗煥證人의 참모들은 깊이 각성해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바른 인도와 바른 政治哲學에 입각한 證言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본에 따른 證言이 계속 진행된다면 더 큰 國民의 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本 特委를 運營하는 委員長과 各 特委幹事들은 全體人에게 이 점을 고지하고 만일 國民이 납득하지 않은 證言이 계속 되면 기히 補充質疑時間 및 방법에 대한 各黨의 合意事項을 지킬 수 없음을 證人인 全 前大統領에게 고지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政治圈이 全體人과 약속한 補充質疑 20분과 各黨에 한 사람의 豫約人은 全體人의 솔직한 證言을 전제로 했던 합의였습니다.

따라서 本 全體人의 證言이 歷史속에서 또

다시 國民을 기망하는 요소가 된다면 이와 같은 기존의 합의는 無效化하고 補充質疑를 다시 근본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타협을 全體人과 합의한 다음에 이 會議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政治圈이 약속을 지키는 바른 議事進行節次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各黨 各 幹事의 特委委員과 委員長은 全體人과 이 점에 관한 깊은 協議後에 會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議事進行發言을 마치는 바입니다.

○委員長 黃明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民正黨側에서는 議事進行發言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므로 議事進行發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事務處에서 證人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案內)

本 委員長이 證人에게 몇 말씀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니 계셨지만 아마 마이크를 통해서 平民黨 民主黨 共和黨 세 분이 나오셔서 가지고 議事進行發言을 하시는 것을 경청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래서 5共特委에서 제기한 74가지 質問事項에서 물론 듣는 분들로서는 여러가지 다른 해석은 나오겠지만 최소한도 20個 이상이 이러한 물음에 證言이 안 됐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전혀 다른 것을 答辯하신 것도 質問에 대한 答辯이 아니고 證人께서 여러가지로 이 聽聞會席上에서 변명을 나열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현재 많았습니다.

이래서 證人께서는 앞으로 또 이러한 證言을 하신다면 아마 오늘 이 聽聞會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聽聞會야말로 다시한번 本 委員長이 證人한테 말씀드리는데 그야말로 歷史앞에 숙연하고 겸허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해서 育瓦臺 4黨領袖會談이 대타협을 이렇게 모색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오늘이 1989年度를 마무리하는 12月31일이을시다.

때문에 우리는 이 多事多難한 어려운 89年度를 보내고 새로운 90年代를 맞이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政治團 또는 일부 國民들의 바람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5共特委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書面으로써 光州問題를 質疑할 때에 證人한테 우리가 기록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幹事會議에서 이 문제는 補充質疑時에 같이 미지한 부분의 答辯을 補充質疑가 끝나고 나서 答辯할 때 같이 答辯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또 補充質疑를 하시는 분이 아마 이것도 첨가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證人은 그렇게 아시고 이 答辯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例가 없도록끔 성실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共問題는 이것으로 끝내고 光州特委로 司會를 바꾸겠습니다.

당분간 會議場 정리를 위해서 한 5分정도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59分 會議中止)

(16時6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 所管事項에 대한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와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政治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의 連席會議를 다시 續開하겠습니다.

(「開議예요!」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제 그것은 사실 開議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소감과 특히 證人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와 國民을 위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本 委員長은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國民과 더불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지금 펴이나 실망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힘의 時代에서 人權의 時代 權威主義의 時代에서 理性의 時代 對決의 時代에서 和解의 時代로 넘어가는 時點입니다. 우리 國民도 이것을 위해서 오래 부쟁해왔고 특히 80年代에 와서는 이것이 그 極에 달했었습니다.

1980年代라고 하는 오늘로서 끝맺는 이 10年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펴이나 상징적인 것입니다. 80年代를 맞이할 때 이 나라에 自由와 正義 人權과 理性을 愛護하는 사람들이 참된 民主主義를 이룩하려고 아우성쳤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이것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1980年代가 끝나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光州에서 일어난 비극의 真相을 알아보려고 前大統領 全斗煥씨를 이 자리에 證人으로 모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두 特委는 10年 동안 이룩된 이 社會의 갖가지의 悲劇과 非理를 나헤쳐서 國民 앞에 알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기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감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때에 관재했던 最高 領導者 崔圭夏 全斗煥 두 분이 나와서 證言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불행히도 崔圭夏씨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全證人을 이 자리에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많은 의혹이 풀려지기를 바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품은 恨이 풀리고 막혔던 담이 풀어지고 걸린 고리가 풀려져서 이 나라의 歷史가 바로 잡혀지고 새로운 내일이 和解와 人權의 내일이 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議事進行發言 가운데서도 누차 들은 대로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면밀하게 연구된 質問들이 하나 하나 지적해서 묻은 質問들이 그대로 회피되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자기 정당화하는 얘기로써 일관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보면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國民들이 지금 크게 불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라기는...

(光州問題는 證言도 하지 않았지 않아요!)

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내가 얘기하는 것은 光州問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共問題에서 되었던 것을 보고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證人은 이 나라의 歷史와 맺힌 恨을 풀고 다시 화합해서 살 수 있는 社會風土를 造成하고 證人 자신이 이 나라에서 人生을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오늘 새로운 심정으로 겸허한 심정으로 솔직하게 묻는 물음 하나 하나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만이 證人의 앞날에 관한 일ियो 우리 나라 역사가 바로 잡혀지는 길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證人을 궁지에 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證人의 發言 성실한 答辯을 들음으로 證人と 더불어 이 나라의 歷史가 바로 되기를 바래서 온 것입니다.

그 심정을 아시고 겸허하게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특히 質問書에 있는 번호를 하나 하나 얘기하면서 이것은 몇번에 있는 무엇에 대한 答辯이다 지적해 주시면서 答辯할 때 우리 듣는 사람도 國民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證言聽取가 있겠습니다. 證人께서는 證言臺에 나오셔서 宣誓를 전달해 주시고...

(場內騷亂)

우리 본래 약속된 것은 이 두 特委는 대등한 特委에서 두 特委에 다 宣誓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것을 낭독하는 것만 생략합니다. 이 내용은 본래의 證言과 꼭 같은 것이고 署名도 여기에 되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證人 全斗煥 계속해서 證言하겠습니다.

먼저 10·26 朴正熙大統領弑害事件에서 부터 12·12事態에 이르기까지의 狀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저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年 國內政局은 維新體制에 대한 國民의 抵抗과 反撥로 政治 社會的으로 매우 어수선하고 經濟도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朴大統領弑害事件으로 18年間이나 지속됐은 절대권력이 일시에 무너져 國家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政治的 空白狀態와 行政體制의 마비는 國民들의 충격과 政治 社會的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더구나 大統領弑害事件이 權力的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中央情報部長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事件直後 政府는 非常國務會議을 소집하여 10月27日 4時를 기해 濟州道를 제외한 全國一圖에 非常戒嚴을 선포하였으며 예상되는 北

韓의 軍事的 策動에 대비하여 全軍이 非常警戒態勢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非常戒嚴宣布와 동시에 戒嚴地域內에서의 수사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舊戒嚴法 第11條와 非常戒嚴業務의 具體的인 施行指針인 陸軍戒嚴施行計劃과 戒嚴布告 第5號에 따라 戒嚴司令官 直屬下에 戒嚴司合同搜查本部를 設置 運營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合搜部가 설치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1979年3月...

○委員長 文東煥 證人! 잠깐 기다려 주세요. 合搜部가 되어진 그 前에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을 물은 조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 넘어서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문제부터 거기에 質問된 사항이 설명되어야 아래 것이 얘기될 것입니다.

例를 들자면...

(「아니 委員長이 무슨 일방적인 司會를 해!」 하는 委員 있음)

이것은 委員長이 가지고 있는 權限입니다. 이것은 4黨幹事들 사이에 합의된 것입니다. 빠진 것이 있을 때는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4黨幹事들 모여서 이것을 再確認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報告해 주세요.

그 동안에 證言을 하세요.

(「계속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證人 全斗煥 당시 合搜部가 설치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本人은 1979年3月 國軍保安司令官이 된 뒤 乙支練習을 실시해 본 결과 戰爭勃發時에 保安司令官의 역할 및 임무 수행과 관련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어 補完策의 강구를 各級 參謀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戰時全國戒嚴狀況下에서는 政府의 모든 組織이 실제상 軍의 統制下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各級 情報搜查機關을 조정 통제해야 할 非常計劃 樹立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非常計劃의 일부로서 合搜部案이 평소와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26事件 직후 실시된 戒嚴은 地域戒嚴이었으므로 政府組織은 軍의 統制下에 있지 않았으나 당시 中央情報部長이 大統領弑害犯으로 체포되고 主要幹部들

도 조사를 받게 되어 中央情報部の 기능은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本人이 保安司令官 就任直後 준비했던 合搜部計劃이 非常戒嚴宣布와 함께 戒嚴司令官을 경유하여 國防長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合同搜查本部는 기존의 搜查機關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機構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軍과 檢察 그리고 警察로 나누어져 있던 搜查業務를 조정 통제하여 戒嚴下에서 搜查機能의 活動의 效率의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前例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62年 당시 金在春防諜部隊長이 合同搜查本部長으로 임명되어 共和黨事前組織 및 4大疑惑事件 등 중요한 사건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金載圭의 체포경위와 12·12事態의 전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統領統率事件 發生直後 國防部에 國務委員 및 軍首腦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靑瓦臺 秘書室長이며 事件現場을 목격한 金桂元씨가 먼저 盧載鉉國防長官과 鄭昇和參謀總長에게 金載圭가 犯人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盧國防長官은 곧 저를 불러서 金載圭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며 鄭昇和總長을 만나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鄭總長室에 가 보니 鄭昇和總長은 本人에게 金載圭를 保安司 安家에 보호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나는 당시 憲兵監 金진기將軍과 협의하여 金將軍으로 하여금 金載圭를 國防長官室로부터 參謀總長室로 유인해 나오도록 하여 그 곳에서 保安司搜查官을 시켜 金載圭를 체포토록 하여 保安司 安家로 移送 保護措置케 했습니다. 그때 바로 10月26日 24時였습니다. 얼마 후 安家의 搜查官들로부터 金載圭가 틀림없는 犯人이라는 報告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安家에 報告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金載圭를 保安司 搜查分室로 이송하여 搜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27日 새벽 2時30分頃이었습니다.

그당시 金載圭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金載圭의 진술에 의하면 “鄭昇和는 내가 陸軍 參謀總長을 시킨 사람이다. 당시 國防長官은 3軍司令官을 參謀總長으로 밀고 있었으나 내가 1軍司令官

인 鄭將軍을 朴大統領께 강력히 추천해서 總長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指示하는대로 하게 되어있다.”고 말하고 金載圭 자신의 지시에 따라 鄭昇和總長은 범행장소에서 36m 떨어져있는 宮井洞 安家에 대기시켰다는 것입니다.

金載圭의 계획은 朴大統領을 암살하고 非常戒嚴을 宣布케 한 다음 軍事革命으로 유도해 鄭總長을 비롯해 軍 高位層을 조정하여 政權을 탈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金載圭의 진술에 의거하여 搜查官들은 鄭昇和總長이 金載圭의 共犯 내지 幫助犯 아니면 배후의 인물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10月27日 11時頃 本人에게 鄭總長을 連行 搜查하겠다는 建議를 해왔습니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증거를 인멸시켜버릴 우려가 있고 搜查進行을 방해하도록 상황을 만들어버릴 염려마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搜查官들로서는 鄭昇和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째서 하필이면 陸軍參謀總長이 할 일없이 金載圭가 大統領을 시해하는 現場近處에 두시간가량이나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것하고 근접한 위치에서 수십발의 M16 銃聲이 들려왔는데도 大統領이 근처에 있는 줄 알면서 當장 真相을 알아보려고 안한 것은 30餘年 軍에 복무하여 軍의 最高職位까지 오른 사람의 습성으로 보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피묻은 셔츠바람에 맨발로 달려온 金載圭를 목격했으면서도 경위도 알아보기도 전에 같은 자동차를 탔다는 것 金載圭는 여섯발을 장전한 권총으로 다섯발을 쏘고 한발이 남은 권총을 허리춤에 꽂고 있었으니 金載圭의 몸에서 화약냄새가 났을 것임에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車안에서 金載圭가 수행원의 상의와 구두를 빌려입고 신고있는 동작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겨버렸고 陸軍本部에 도착하고서도 별다른 措置없이 金載圭가 하자는 대로 軍 移動을 한 것등으로 하여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搜查官들의 의견이었고 당시 저 자신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本人은 처음에 搜查官들의 建議에 口頭承認을 내렸다가 나라의 全般的 情勢에 생각이 미쳐 그 承認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분간은 戒嚴令의 질서하에 國

丙 治安確立이 시급한 일이었고 北韓 南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戒嚴司令官에 任命된 지 7시간밖에 안된 鄭總長을 連行하는 事態가 생기면 혼란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도피의 우려도 희박하고 증거인멸을 한다해도 그 犯人은 변할 것이니 무방하리라는 생각도 있어 그대로 搜查官을 타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外信報道와 國內言論을 통해 弑害事件에 鄭總長이 관련되지 않았는가 하는說이 나돌게 되자 鄭總長은 자신이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 自請에 따라 10月29일부터 11月1일까지 4日間 合搜部 搜查官들이 陸軍參謀總長室에 出頭하여 매일 두시간 정도 鄭總長을 參考人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搜查官들은 戒嚴司令官으로서의 職位를 이용하여 위압감을 조성함으로써 순리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報告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 鄭總長은 搜查官들이 작성한 調查內容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전후 네차례에 걸쳐 修正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調查물 總長室로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調查內容을 직접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鄭昇和總長의 10·26弑害事件關聯 의혹이 짙어만 갔습니다. 많은 역측이 流言蜚語가 되어 항간에 범람했습니다. 동시에 本人의 鄭總長에 대한 의혹도 쉽사리 불식될 수가 없었습니다.

의혹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國家元首 弑害事件이 金載圭의 단독범행일 까닭이 없다 사후에 무슨 확고한 계략이 없이 단독으로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 鄭昇和將軍을 비롯한 軍의 일부가 관련되어 있다. 그 증거의 일단이 10·26 犯行당시 鄭總長이 범행현장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록 이것이 假說이었다고 해도 수사 책임을 맡은 사람은 명명백백한 反證이 없는 이상 가변계 그 假說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假說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金載圭事件이 마무리 되기 전에 쿠데타가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假說이 假說이 아니고 사실이었을 때의 사태를 미리 감안하고 행동하는 것이 수사책임자가 명심할 대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동안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弑害事件직후 陸軍本部에 같이 도착한 자리에서 鄭總長은 金載圭에게 당시의 부대배치상황을 報告하고 金載圭의 지시에 따라 제9空輸旅團을 陸軍本部로 출동시킨 사실입니다.

軍의 주요부대 이동은 國防長官과 大統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취한 조치입니다.

그무렵 항간에는 美國의 情報機關이 弑害事件에 관련되어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本人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在野 일각에서 金載圭救命運動과 함께 金載圭를 民主騎士로서 영웅시하려는 輿論報道 경향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는데 鄭總長은 이런 경향을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鄭總長은 戒嚴司令官이 된후 首都團部隊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10·26 이후에 忠正部隊의 핵심 首都警備司令官에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中央情報部長署理에는 역시 자기와 가까운 李煥性 陸軍參謀次長을 임명하는등 요직 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 1軍團長과 首都軍團長은 鄭總長과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特戰司令官 및 6軍團長 3軍司令官은 金載圭 계열로서 보직이 되어 있었는데 鄭總長은 특히 特戰司令官과 3軍司令官과는 빈번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부터 鄭總長은 陸軍本部 主要指揮官會議 등에서는 3金씨의 자질과 자격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는데 머뭇머 보건대 자기의 政治的 의도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中央情報部는 合搜本部와의 情報協調를 기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실록 鄭總長이 主犯이라해도 수사책임자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되어가는데 鄭總長은 弑害事件關聯說 사건 당시와 직후의 불투명한 행동으로 軍內部에서도 그에 대한 의혹은 더해갔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合攔本部長으로서 大統領弑害事件이야말로 중대한 사건인만큼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신념하에 정확한 전모를 신명을 걸고 밝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남은 作業은 鄭總長의 혐의를 조사하여 그 의혹을 말끔히 없애는 일 이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黑白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軍에 대한 國民의 신뢰는 물론 軍自體의 기강이 흔들리는 동시에 마침내는 軍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月頃 本人은 모든 상황을 盧國防長官에게 報告하고 鄭昇和總長의 연행조사를 건의하였더니 좀더 두고 보자고 했고 그후 崔大統領께 건의드렸더니 國防長官과 상의하라고 말씀하시어 本人으로서서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鄭總長은 당시 陸軍參謀總長이며 戒嚴司令官으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軍 내부에 강력한 지지세력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조사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모한 노릇이었습니다.

복숨을 걸어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었으며 그야말로 구국적인 소신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평상시 本人은 美國의 케네디大統領 暗殺事件이 영원한 미궁에 빠져 버린 것을 美國의 수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본인이 운명적으로 시해사건수사의 최고책임자가 되었을때 저 개인의 신상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필코 이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히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本人은 金載圭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美國이 개입되었다는 풍설 軍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陸軍參謀總長이 범행 현장근처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취합해서 쿠데타가 아니면 쿠데타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당시로서는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鄭總長의 말대로 鳥飛梨落格으로 그가 시해 현장근처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건 그분의 不運이라면 不運일 것입니다. 不運이라 해서 수사의 객관성과 냉정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용의자를 제외하고 수 불 마무리지었다간 의혹은 의혹대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수사책임자의 직무태만이라는 원성으로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本人은 직무태만이라는 비난이 겁나서가 아니라 鄭總長에 대한 완벽한 조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鄭總長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本人은 鄭總長을 수사할 적기를 포착하기 위해 政局의 추이를 주시하는 한편 軍 내부의 여론을 수집하였습니다.

11月 중순경부터 全軍 將星들과 접촉을 계속하였는데 그 가운데 鄭總長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장군도 끼어 있습니다.

당시 黃永時1軍團長 車圭憲首都軍團長 俞學聖國防部軍需次官補 盧泰愚9師團長 등을 한분 한분 찾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10·26事態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고위층도 예외일 수 없으며 빨리 후백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陸軍 最高責任者의 관련혐의는 軍의 단결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本人은 본인의 신념과 軍 전체의 총의가 일치된 것으로 느끼고 12月 초순 大統領選舉가 끝나고 內閣이 새로 발족한 후 金載圭裁判과의 관련으로 보아 鄭總長에 대한 수사를 연기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12月12日 임무를 결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12月12日로 날짜를 잡은 것은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휴일동안 수사를 하고 조용히 마무리지를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本人은 총리공관으로 崔圭夏大統領을 찾아뵈고 鄭昇和總長을 연행하여 조사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혐의 만으로도 鄭總長이 戒嚴司令官과 參謀總長職에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鄭總長을 조사한 결과 그가 戒嚴司令官 및 參謀總長職에서 물

러나게 될 경우 그 공백을 大統領께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해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大統領의 사전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合搜部長의 포괄적인 고유권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인은 合搜部 수사요원을 총장 공관으로 보내 鄭總長에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전한 후 모셔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鄭總長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강제연행을 하게 됐고 鄭總長이 총장공관을 경비하고 있던 헌병에게 발포명령을 내림으로써 수사요원이 희생되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불상사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本人은 그날밤 18時30分 경복궁에 있는 30團으로 평소 鄭總長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軍의 중진 장성들과 그밖의 몇몇 장성들을 초청해 놓고 있었습니다.

鄭總長이 시해사건과 고의건 아니건 관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軍 內部の 분위기를 쇄신하는 뜻으로도 軍 지휘계통에서 물러나는 용단을 내리도록 허심탄회하게 건의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搜查結果 豫編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30團에 모인 장성들이 總長公館에까지 따라가서 조용히 豫編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한 것은 鄭總長이 일단 豫編하기로 결심하였다가 혹시 울컾하는 감정으로 軍을 동원하여 保安司를 공격하고 수사요원을 체포하여 하극상 사건으로 돌아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려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때문에 그러한 사전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保安司가 아닌 30團으로 정한 것은 本人이 鄭總長의 감시하에 있다는 情報 報告에 따라 보안유지를 위해 저의 사무실이 아닌 바로 인접한 30團 團長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상했던대로 연행과 관련된 무력충돌 직후 全軍에 非常令이 발령되면서 수도권의 병력을 장악하고 있던 鄭總長 측근의 首警司官과 特戰司官 등이 맹크를 포함한 중무장부대를 동원하여 靑瓦臺 지역을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合搜部는

搜查機關으로서 전투병력이 없는 상태이고 부대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될 것이므로 주요부대 지휘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등 충돌을 피하도록 적극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鄭總長 측근에서 계속 위협을 가해 왔기 때문에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제한된 규모의 예비 병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마는 이것은 긴급 대응의 조치로서 매우 유감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사회일각에서도 또는 美國側에서 이 사태는 계획적인 거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태는 돌발적이었습니다.

당시 30團에 모여 있던 장성들이 병력을 출동시킬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또한 本人에 대한 전보발령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않는가 하는 의문도 있는 모양이지만 本人은 그당시에는 일체 그와 같은 일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本人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12사태는 시해사건의 수사 도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을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된 병력 출동계획도 없는 쿠데타가 어디 있겠으며 만약 쿠데타였다면 왜 本人이 그 직후 바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겠습니까.

本人은 그 당시로서는 政治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故 朴大統領으로부터 政治의 入門 권유를 몇 차례 받은 바 있으나 굳이 사양하고 軍의 길을 걸었습니다.

大統領 시해사건의 수사를 맡은 책임자가 그 사건의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하극상이라는 용어는 당치도 않습니다.

비록 용의를 벗었다고 해도 당시에는 용의가 존재 했고 수사상 수사한 결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벗어날수 없는 용의자였습니다.

일단 용의자로서 지목 되면 地位의 高下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上官이니 下位者니 하

는 관계는 없어지고 용의자와 수사책임자의 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12·12事態는 당시 緝毒事件에 대한 최고 搜查責任者인 본인이 수사한 것이며 따라서 그로 인해 야기된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80年5월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光州事態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 軍部の 派遣과 作戰指揮 自衛權發動問題 그리고 당시 美國政府의 역할등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 事態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이 事態가 본인등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드리겠습니다.

光州事態는 10·26 이후 지속된 극심한 社會 혼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지극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事態 發生 당시 情報의 總體的 責任者로서 초기 단계에는 쌍방간에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며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戒嚴司令部에서 무력진압을 계획중이라는 情報 報告들은 바 있으나 이처럼 엄청난 비극으로 확대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光州 일대는 中央情報部 保安司 警察 등의 情報機關들이 모두 市 외곽으로 철수하고 있는 狀況이었으므로 情報責任者였던 본人も 필요한 情報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고 현지 駐屯部隊인 光州戒嚴分所에서 戒嚴司에 보내는 보고를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었던 극히 혼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情報不在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保安司에서는 서울에 있던 光州出身의 한 將校가 자진해서 현지에 잠입 단편적 情報를 戒嚴司를 통해 보내오기도 하고 또 당시 保安司의 幹部를 현지로 실정 파악을 위해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여러가지로 정확한 상황판단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情報에 기초하여 本人은 武力鎮壓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으며 市民을 상대로 한 사태수습을 軍作戰概念으로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정보책임자로서의 의견을 戒嚴司의 指揮官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人名被害를 낸 이 비극적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本人은 뭐라고 한 두마디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당시 戒嚴下에서 光州事態以前에 서울 등지에서도 각종의 示威가 있었으나 평온을 되찾은 반면 유독 光州에서만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던 이유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本人은 당시의 정보책임자로서 이 사태가 초동진압단계에 있어서 戒嚴軍의 강경진압과 일부 출처불 알 수 없는 악의에 찬 流言蜚語에 자극받은 일부 市民들의 과격시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의 軍部隊派遣 및 作戰指揮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光州事態와 관련된 戒嚴業務는 全國的인 戒嚴業務의 일환으로서 戒嚴司令部가 주재하는 戒嚴關係官 1日會議에서 報告되고 論議되어 推進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中央情報部長署理인 本人은 그 會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軍指揮系統上的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本人은 軍의 配置移動등 作戰問題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의 戒嚴司令部 李濤性將軍은 그분의 강직한 개인적 性品으로 보아도 指揮線上에 있지 않은 本人이 軍作戰에 介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本人이 파악한 바로는 空輸部隊는 5月18日 戒嚴擴大措置의 일환으로서 光州뿐만이 아니라 서울 大田 全州地域에도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全北 益山郡 金馬面에 주둔하고 있던 第7空輸旅團兵力을 光州 全州 大田에 각각 300餘名 규모의 1個大隊씩 파견하고 서울地域 8個 大學에도 6個旅團 兵力 6,600餘名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戒嚴軍의 증강은 光州地域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光州地域의 특수한 상황을 예상하여 투입된 것은 더욱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現地指揮官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部隊를 파견 배속하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軍指揮의 이해부족에서 제기된 의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軍作戰上 部隊의 파견과 배속 등에 관한 指揮權限은 上級指揮官의 固有權限이며 필요하

다고 판단시에는 現地 指揮官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光州事態 당시 現地駐屯軍은 後方豫備師團으로써 사실상 당시의 상황수습에 필요한兵力이 충분하지 못했으리라고 판단될 뿐입니다.

上部의 追加兵力配置를 반대했다는 것은 들은 바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당시 指揮體制가 二元化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또한 일반적 軍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部隊라 하더라도 일단 他部隊에 作戰配屬이 되면 그 配屬을 받은 指揮官은 즉각적으로 그 部隊를 장악해서 指揮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의 모든 作戰上 勝敗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 現地 指揮官이 軍 經歷上 特殊部隊에 대한 指揮經驗이 전무하여 원활한 작전수행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配屬된 部隊가 現地 指揮官의 指揮統制에 불응했다는 주장은 軍門에 오랜 세월을 보낸 本人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戒嚴軍의 自衛權 행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自衛權의 행사문제는 초기에는 軍人 服務規律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證人! - 證人! 잠깐만 중지하세요.

○證人 全斗煥 現地 상황을 더욱...

○委員長 文東煥 지금 제가 모두에 부탁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순서에 따라 하라고 하는데 나 자신 이것을 암만봐야 너무 개괄적으로 해서 도저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대목을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해 주어야지 빠진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쪽에서 성의껏 준비한 質問紙에 따라서 하도록 해주세요.

(場內騷亂)

○證人 全斗煥 계속하겠습니다.

5月22日 自衛權 발동도 가능하다는 戒嚴司令部의 作戰指針이 指揮系統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證人!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몇번에 대한 對答이예요? 이것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證人 全斗煥 軍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現地 指揮官의 사태판단에 따라 制限의으로...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證人! 委員長이 묻는말에 對答하세요. 우리가 質問을 낼 때는 이것이 대화 되는 대신으로 낸 것입니다. 聽聞會라는 것인 一問一答하는 것이 원칙인데 前職 大統領이라는 것을 존경해서 이렇게 번호를 주면서 이 번호에 따라 對答하도록 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이 一問一答 번호를 대답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對答입니다.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막연한 것 밖에 되어서 안 되겠어요.

(場內騷亂)

○證人 全斗煥 계속하겠습니다.

自衛權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現地 指揮官의 사태판단에 따라...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일단 停會를 하겠습니다.

(16時47分 會議中止)

(19時49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기에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가 되었던 이유와 幹事會議에서 어떻게 合意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停會가 되었던 이유는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에서 제출한 訊問事項이라는 것은... 사실 聽聞會라는 것은 一問一答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前大統領에 대한 예우때문에 대신으로 書文으로 質疑한 것입니다.

따라서 光州 우리 聽聞會의 뜻은 答辯하되 이 순서에 대해서 一問一答하는 원칙으로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答辯을 준비하실 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答辯을 만드시는 이의 뜻대로 答辯을 해서 答辯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취지 자체가 동의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聽聞會 시작할 때부터 1, 2, 3번 質問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지적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을 하시지 못했고 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그것을 시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答辯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答辯을 준비한 대로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質問에 대해서 그런 答辯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質問事項을 듣는 청중들 앞에서 꼭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원칙대로 생각하자면 答辯이 있기 전에 質問이 있어야 하지만 與黨에서 하던 答辯을 끝나치고 읽어야 되겠다고 주장하기에 우리 野黨은 거기에 양보해서 일단 答辯을 다 들은 다음에 이 質問事項을 읽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와서 나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完求委員 委員長! 그렇다면 5共非理 역시 한가지입니다. 5共관계도 74個項중 36個項에 대해서는 答을 안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것은 거기서 따로 얘기하고 여기서는 결의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沈完求委員 光州特委나 5共特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것은 또 차후로 하고 決議된것을 執行합니다. 그것은 다시 幹事會議에서 모여서 얘기해 봐야 되고 우리 합의된 것만을 내가 지금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證人나와서 答辯하세요.

○證人 全斗煥 證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당시 5月22日 自衛權 發動도 가능하다는 戒嚴司令部의 作戰指針이 指揮系統을 통해 下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衛權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現地指揮官의 사태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조용히 하세요.

○證人 全斗煥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現地指揮官들이, 自衛權行使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答辯이 끝난 다음에...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55分 會議中止)

(22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이제 續開를 宣言합니다.

그러면 證人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에 會議를 그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證人이 오지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會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께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會議가 지연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身上發言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한 5分 넘지않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존경하는 先輩委員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지금까지 會議가 진행되지 않고 民正黨 委員들께서 불참하고 계시고 證人이 또 그에 따라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사태는 조금 전에 會議進行中에 平民黨委員 그리고 民正黨委員의 약간의 소란사태가 있었고 그에 이은 本人의 名牌를 던졌다는 行爲 이런 것이 일단 문제가 되어서 다른 문제는 모두 다 與野間에 합의가 되었지만 本委員의 謝過問題가 해결 되지 않아서 會議가 遲滯되고 있기 때문에 本委員의 行爲와 그 과정 그리고 謝過에 관련된 諸般問題에 관해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本委員이 名牌를 本演壇을 향해서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그 당시는 이미 委員長께서 停會를 宣布 하셨고 그리고 證人이 퇴장을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였다 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會議의 進行中이 아니었다 會議場이기는 하지만은 會議中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會議中이었던 아니었던 會議場 안에서 그와 같은 行爲가 있던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 과정과 동기를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會議進行中에 平民黨所屬 議員 本 特委委員이 아니면서 平民黨所屬議員이신 한두 분의 議員께서 證人의 證言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분들은 80年 光州抗爭當時 스스로 피해를

입었던 본이고 또 그분들이 國會로 나오게 된 과정이 80年 光州抗爭에서 피해를 입었던 아직도 그 恨을 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國會에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抗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本特委委員이 아니면 抗議를 했다거나 또는 복도로 나온 行爲가 좀 지나쳤다고 본다면 그점에 관해서는 委員長께서 적절히 措置를 하시면 會議을 원만히 進行할 수 있는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委員長과 또 그분들의 所屬政黨이 같기 때문에 이는 별 문제없이 수습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항의를 보고 民正黨所屬委員들께서 나오셔서 직접 거세게 오히려 그 사람들 항의보다 더 큰 소리로 저는 느꼈습니다. 느껴지는 이와 같은 맞고함이 나왔고 조금 있다 곧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부득이 委員長께서 停會를 宣布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저는 오늘 이 會議의 벽두부터 委員長의 議事進行에 있어서도 委員長이 證人에게 警告를 하거나 또는 歷史性이 있는 어떤 發言을 하실때마다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해오셨던 民正黨 委員들의 행위가 어쩐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이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척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會議가 中斷돼서 옥신각신 會議場이 수라장이 되는 모습에 격분한 나머지 이런 會議라면 참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솔직한 감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名牌를 이 텅빈 演壇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停會중이었고 會議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텅 빈 演壇이었다 하더라도 議員으로서 품위있는 행동은 아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되면 끝에 平民黨議員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本特委 委員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와서 發言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與野간에 정리가 되고 本委員의 謝過問題만 남아 있게 되어서 本委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

늘 聽聞會를 보고 저는 차라리 오늘 聽聞會가 中斷되고 이것은 歷史의 속제로 남겨 두어야지 이렇게 國民들의 여망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形式的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래도 많은 先輩委員들께서는 기왕에 열은 聽聞會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지시고 저에게 가서 사과를 합이 좋다고 해서 會議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가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희黨 先輩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民正黨 委員 존경하는 民正黨委員들께 사과를 나와서 하지 말고 文書로 써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까지 이 경위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경위부분만 해도 글로 쓰려면 한참 時間이 걸리는 것도 現實的인 문제이거나 제가 또 글재주가 없고 보면 충분히 사실을 밝혀 해명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한 國會의 議事節次에 있어서 委員의 發言이 書面으로 대치된다는 前例를 저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기왕에 하는 양이면 國會法의 節次에 따라서 나와서 口頭로 發言해야지 어떻게 文書로 그렇게 제출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과합니다 한줄을 쓰면 그것이 사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만 언제든지 어떤 사과가 있을 때는 그 사과의 원인된 행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받겠다는 그와같은 자세가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사실을 소상하게 해명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 더 口頭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口頭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지금 會議는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고 民正黨委員님께서 안나와 계시기 때문에 證人도 또한 나오지 않고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委員長 文東煥 죄송하지만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盧武鉉委員 제게도 이 원인에 어떤 형태로든 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해서 저는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조금전에 나오신 證人の 證言을 바라보고 그 證言과 사과 수준에 비추어서 그 분이 했던 일과 오늘 證言의 수준에 알맞게 오늘 제가 했던 일의 사과의 수준을 맞추면 어느정도가 알맞을까에 대해서 무척 고민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을 보지 않고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과를 드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부언 드리고 싶은 것은 本特委가 운영되는 처음에 부터...

○委員長 文東煥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 다. 빨리 해 주세요.

○盧武鉉委員 그리고 그 이후 與黨의 不參으로 해서 特委가 거부되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法の 尊嚴性이 농락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앞에서 國會議員으로서 일호의 애착도 미련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오늘 제가 선 이자리에서의 사과는 오늘 會議에서 會議를 원만하게 진행시키는 조건으로서의 사과로서는 아무 조건없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외에 달리 또 문제를 남겨 둘 필요가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도 이 會議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는 敎免받고자 하는 意思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本委員이 현재 있는 議會의 政治水準에 미달하는 사람이어서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점에 관해서는 제 스스로 깊이 많은 입장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상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신 존경하는 우리 與黨委員님들께 새해에도 변함 없는 國民의 支持와 聲援이 있을 것을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 議事進行發言要請이 있어서 議事進行發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民主黨의 張石和委員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證人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證人을 부르세요!」하는 委員 있음)

證人은 아까 벌써 얘기했습니다. 10분 지나서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나오시는 것으로...

(「그래도 再促求를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충분히 사과했으니까」하는 委員 있음) 促求했습니다. 그런데 4黨合意가 안되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黨合意가 되지 않아서...

○金東周委員 다 했지 않습니까. 盧武鉉委員이 자기 이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글썬. 안나오시니까 이제는 議事進行發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委員長으로서 한번 더 證人에게 警告를 해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專門委員 두분을 두번보냈습니다.

(「民主黨에서 나왔으니까 나오라고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民主黨에서 議事進行發言을 요청했으니까 그 때 얘기할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委員長님 會議를 진행하시고 4黨幹事는 나가서 합의하라고 하세요.

○梁性佑委員 民主黨이 왜 안 나오니까? 民主黨이 거기에서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盧武鉉委員의 사과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4黨幹事들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沈明輔委員 4黨간의 合意事項을 지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이 문제는 幹事들이 가서 다시 문제를 정리 해주시고 議事進行發言을 시작하십시오.

○張石和委員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民主黨과 全斗煥證人은 盧武鉉委員의 사과를 핑계로 몇 時間동안이나 特委進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盧委員은 停會중에 全斗煥證人의 僞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한 것뿐인데 이것을 빈미로 議事進行을 방해하는 것은 더이상 會議를 계속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國民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民主黨과 全斗煥證人은 지금이라도 즉시 會議에 출석하여 會議進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면 나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東煥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議事進行發言때 말씀해 주세요.

○張石和委員 民正黨과 全斗煥證人이 불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全的으로 民正黨과 全斗煥證人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本委員은 오늘 聽聞會 劈頭에 議事進行發言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委員長에 의하여 거부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本委員이 開會 직후에 議事進行發言을 신청했던 취지는 議事進行發言을 不許하는 것 또한 補充質疑를 制限하는 것 등은 결코 5共非理와 光州問題의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證言 시작전에 이와같은 會議運營方法을 是正한 후에 證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같은 議事進行發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本委員의 우려와 같이 聽聞會를 幹事合意方式대로 운영해 온 결과 보시는 바대로 현실로 이와 같은 우려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聽聞會 目的은 證人으로부터 성실하고 歷史 앞에 부끄러움 없는 證言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證人の發言은 온 國民이 기대한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答辯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證人이 지난 해 延禧洞을 떠나면서 百潭寺로 갈때 모든 것이 證人の 책임과 잘못이므로 國民에게 용서를 빌면서 百潭寺에 참회하러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證人の 答辯態度를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은 證人이 잘 했고 잘 못한 것은 추호도 없다라고하는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5共特委 質疑 74個 項目中 20餘個 이상 項目과 光州特委 51個 訊問 事項中에 거의 대부분에 관해서 答辯을 故意的으로 누락했고 또 證人에게 불리한 證言에 대해서는 목살해 버렸고 또한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 具體的인 答辯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 두 例만 들어 보겠습니다.

12·12事態 當日이 證人은 토요일이다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調查를 조용히 해서 일요일에 國民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한 것이다 이렇게 證言을 했지만 그날은 분명히 수요일입니다.

이와같이 偽證을 서슴치 않고 있고 또한 12·12事態가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國

民이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쿠데타가 아니다 이렇게 偽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6·29宣言과 政治資金問題에 관해서도 證言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證人이 5共의 온갖 不正과 非理와 光州問題의 진상을 밝히고 國民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5共 清算을 열망하는 온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로서 온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歷史的眞實을 호도하는 證人の 태도를 더 이상 참고 堪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5共清算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국민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5共清算이 아니라 5共問題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 特委委員들이 인허한다면 5共非理와 光州問題에 관해서 證人에게 免罪符를 발급해주는데 우리 特委委員들 모두가 幫助犯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報道된 바에 의하면 百潭寺側과 靑瓦臺側이 「햇 라인」을 미리 개설해놓고 證言內容과 證言의 수위를 조절했다 證人の 答辯書 작성 과정에서 政府에서 자료를 제공했다 또 盧·순씨가 극비로 면담을 했다고 하는 등의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民正黨側이 지난 聽聞會에서 보여준 그러한 태도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證人の 證言態度를 비호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委員長은 이와 같은 사실 眞意與否와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偽證敎唆를 누가 하고 있는지 이 점을 명백히 밝혀서 偽證敎唆罪로 告發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全斗煥證人은 委員長이 本委員會를 續開한 지 지금 30分 이상이 되도록 이 자리에 出席하지 않고 있습니다. 證人이 정당한 이유 없이 不出席해서 우리 國會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全斗煥證人은 6·29宣言部分 政治資金部分에 대해서는 명백히 證言을 拒否하고 있

습니다.

全斗煥證人에 대해서 우리 特委에서 이 자리에서 證言拒否罪와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證人 不出席罪와 또한 僞證한 것에 대해서는 僞證罪로 모두 併合해서 우리 特委에서 告發節次를 취해 줄 것을 委員長에게 促求를 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고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음은 共和黨의 金仁坤委員께서 말씀해 주세요.

○金仁坤委員 金仁坤委員입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與野를 막론하고 光州에서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전부 우리 가슴 속에 武器도 안 가진 良民에게 무차별하게 殺傷을 했고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 말씀이 격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4黨領袖께서 前大統領의 예우를 한다고 하는 合意가 이루어진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중에 우리들 마음대로 여의체는 안됐습니다마는 그 4黨領袖의 合意事項을 지키는 뜻에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제가 목이 쉬어서 조금 소리가 이상스럽게 나는데 대해서는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光州問題 5共問題는 우리들 歷史에서 진실로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럽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現實的인 문제로 이 문제가 기위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世界史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막힌 비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차선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있었을 때 證人 全斗煥씨가 大統領在任時에 對國民에게 사과를 하고 모든 光州市民에게 暴徒로 몰았던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 죄없이 죽어간 그 분들에게 역시 그 家族들에게 賠償 내지는 補償을 하고 또 記念事業을 하고 墓域을 聖域化시키고 이런 등등의 일을 마무리를 자기 손으로 지어서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다시 論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인데 그것까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光州市民을 暴徒로 몰아왔습니다. 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뒤늦게나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對國民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들이 質疑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答辯했어야 옳을 일인데 그 자체가 전체 國民의 기대에 엄청나게 어긋나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이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몇몇 委員께서 불성실한 答辯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규탄 내지는 진솔한 答辯을 촉구하는 뜻에서 약간의 강력한 촉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빌미로 해서 중단을 시키고 나오지를 아니하고 계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國民을 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國民의 이름으로 全斗煥씨와 與黨에 대해서 규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罪狀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歷史가 아무리 億萬年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과 이 罪科는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면서 본인의 議事進行發言을 마치고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民黨의 李海瓊委員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海瓊委員 平民黨의 李海瓊委員입니다.

오늘 1989年12月31日 불과 20分만 있으면 이제 1980年代가 종말을 고향니다. 1990年代에 들어가서 이 강토에서는 우리 6千萬 겨레가 화해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대단히 비장한 마음으로 이 聽聞會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議事進行發言을 하는 게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1980年 벽두를 피로 물들었던 한 證人이 이제 10年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와서 거짓과 僞證으로 1980年代 말미를 더럽힌다는 오늘의 證書過程을 줄곧 지켜보면서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서글픔과 분노와 저주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全斗煥證人께서는 이 國會에 아직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光州民主化運動에 관한 證書過程에서 바로 그 全斗煥政權에 의해서 人間의 生命을 앗아갈 수 있는 死刑宣告를 받았던 한 委員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僞證을 일삼는 證人에 대해서 강한 抗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 이후로 꼭 停會를 계속해 왔습니

다.

그 과정에서 民正黨은 同僚委員의 사과가 있어야 會議에 참석한다고 그랬고 全斗煥證人은 4黨이 合意해서 요구하지 않는 證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구실을 빌미로 聽聞會에서의 證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는 상당수의 民正黨 委員들이 會議에 出席해 있습니다. 民正黨 委員들은 그토록 사과 없이는 出席을 안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바로 이 會議에 出席해서 議事進行發言까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全斗煥證人은 民正黨委員이 參席한 이 會議에 반드시 나와서 당장 나와서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證言이나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다른 先輩 同僚委員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해요!」하는 委員 많음)

사실 저는 個人的인 價値觀에서 말한다면 全斗煥證人을 상대로 해서 이 聽聞會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지않았었습니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고리 10年 묻어도 뭐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제 중대한 事案이고 한 時代를 整理하고 넘어가야 할 절박한 事案이기 때문에 忍耐와 自削心을 가지고 이 聽聞會를 줄곧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 바로 이 全斗煥政權에 의해서 무고한 징역살이를 많이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吶聲을 안 높이면서 그 단 한 마디의 證言이라도 51가지물 묻은 事案중에서 案 모두가 아니고 단 한 가지 事案에 대해서라도 진실한 證言이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全斗煥證人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려는 마음으로 이 聽聞會에 臨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國民의 마음이 全斗煥證人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聽聞會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낱같은 한 가지 희망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政治를 말아가는 4黨의 總裁께서도 당연히 5共清算과 光州民主化運動에 대한 真相을 糾明하기 위해서

는 명백하게 證言할 수 있는 충분한 聽聞會가 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職大統領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최대한의 禮遇를 갖추어 이 聽聞會에 여러가지 양보를 거듭하면서 聽聞會에 응했던 것입니다.

본디 聽聞會라는 것은 사실을 糾明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를 묻고 한 가지를 答辯하고 그 答辯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거나 僞證이 있으면 다시 묻고 하는 一問一答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前職에 대한 禮遇에 티끌만큼이라도 累가 될까봐 書面으로 質疑하고 補充質疑만 좀하자... 그것도 憲法機關인 모든 委員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4黨에서 한 사람씩만 하자 이렇게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 조그만 진실한 證言이라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不問에 붙이겠다 정말 이 社會에서 自由人이 되어서 평화롭게 우리 國民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狀況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라고 거듭거듭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全斗煥證人은 진실을 말하기는 커녕 聽聞會에서 事實無根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하는 그런 眼下無人格인 몇마디 말로 이 國會와 國民을 우롱하고 말았습니다. 全斗煥證人은 오늘 眞實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荒唐無稽한 詭辯과 터무니없는 僞證만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는 個人的으로 眞實을 말하면 道德的으로 政治的으로 敎免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聽聞會였는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 스스로 외면하는 어리석은 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 國民은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1990年代를 和解와 希望의 새해를 맞이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5共清算이 아니고 同僚委員 말씀대로 이제 5共의 非理를 光州問題의 그 아픔을 더욱 深化시키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새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明若觀火합니다마는 내일부터는 훨씬 더 全斗煥證人에 대한 國民의 분노와 저주와 격분이 더욱 고조되리라고 저는 斷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全斗煥證人의 證言이 얼마만큼 거짓으로 가득찬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全斗煥政權이 그토록 流言蜚語라고 國民들을 몰아세웠던 그 悲劇的인 狀況 女子의 젖가슴을 찢어서 죽었다 라는 것 그런 流言蜚語를 퍼뜨려서 光州市民들을 격분케 했다 선동했다 이런 주장을 全斗煥政權은 지난 終末을 고향 때까지 줄곧 해왔습니다. 저도 그것이 그 사실이 정말 流言蜚語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光州聽聞會에서 資料를 조사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光州地檢 金庫에는 열여덟살 먹은 宣玉禮양의 屍體檢屍調書가 지금도 버젓이 保管되어 있습니다. 그 屍體檢屍調書에는 당시 軍醫官과 警察官과 檢事의 立會가 다 되어 있는 公文書입니다. 그 公文書에 死亡原因이 左乳房部 胸廓刺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젖가슴을 칼로 찢어서 죽었다 이것이 지금도 光州地檢의 金庫속에 보관되어 있는 當 特委에 寫本을 提出한 檢屍調書의 死亡原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光州市民을 流言蜚語로 선동했다 라고 이 政權은 몰았고 5共政權은 몰았고 오늘 全斗煥證人도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 陳述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고 당시 光州에 駐屯했던 軍 部隊는 불과 열살도 안된 어린아이가 저수지에서 놀고 있는데 銃擊을 가해서 죽인 경우도 있고 예순살이 넘는 老人을 頭蓋骨을 破裂해서 죽인 檢屍調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自衛權이라는 이름 하나로 뻔뻔스러운 證言을 하고 돌아간 이 證人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憐憫의 情조차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全斗煥證人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0分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聽聞會에 나와서 그 80년에 죽어간 光州市民들의 英靈을 위로하는 뜻에서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負傷者와 遺家族을 위해서 그리고 이 社會의 民主化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謝過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 하고서는 來日부터 시작되는 1990年代를 우리가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全斗煥證人은 眞心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聽聞會에서 오늘 次數를 變更해서라도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僞證과

거짓으로 一貫했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이 겨레와 民族을 위해서 그리고 작게는 全斗煥證人 自身을 위해서 그 家族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責任있게 答辯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聽聞會는 반드시 사신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進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全斗煥證人이 그렇게 謝過를 하고 성실하게 答辯하겠다고 約束만 한다면 우리 特委에서는 補充質問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을 糾明해야만이 이 다음 시대를 우리가 後孫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되는 갈등과 저주와 증오 속에 우리 社會는 끊임없는 고통과 歷史的 退步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길지 않은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 全斗煥證人의 그 뻔뻔스러운 僞證에 대해서 마치 혼련된 部隊와 같이 엄호하고 나서는 民正黨委員들에게도 진심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聽聞會가 아침 10時부터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우리가 全斗煥證人의 證言은 불과 두時間 남짓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원인의 상당부분이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民正黨 同僚委員들에게 대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國會는 실령 民正黨 總裁를 지낸 前職大統領이 證人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13代國會에서의 民正黨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과오를 씻는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證人의 訊問이 잘 되고 그리하여 이 불행한 과거를 오늘로써 청산할 수 있도록 協調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靑瓦臺 領袖會談의 基本趣旨도 그런 뜻으로 성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4時間 가까이 진해진 과정에서 본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런 반성의 기미가 결여한 마음의 자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同僚委員이지만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聽聞會때도 말씀을 드린 글입니다만 정말로 저는 이 글을 이 聽聞會를 지켜보고 있는 國民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全斗煥證人이 80年9月1日 第11代 大統領 就

任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權力을 이용하여 數拾億 또는 數百億의 財産을 긁어모은 政治人이 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思考方式이 팽배해 있으며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이 社會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기는 커녕 오히려 못난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不條理와 腐敗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外部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內部의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의 存立마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百獸의 王인 사자도 다른 猛獸의 공격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內部의 병균이나 기생충에 죽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全斗煥大統領이 11代에 취임하면서 한 그 장엄한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로부터 10年이 지난 이 時點에서 저는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全斗煥 證人에게 이 말을 다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全斗煥 證人은 國家安保를 빙자해서 平和의 「덫」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誠金募金을 강제로 시켰고 日海財團과 각종 非理를 저질렀던 장본인으로 이 聽聞會에 證人으로서 출두한 것입니다.

바로 이 大統領就任辭에서 얘기했던 그 적나라한 사실을 한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證人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訊問을 못하고 충분한 答辯을 듣지 못한채 이제 이 會議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을 정말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全斗煥 證人에게 촉구합니다. 民正黨委員들은 議事進行發言을 달라고 지금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全斗煥 證人은 民正黨委員이 함께 要求한다면 이 자리에 出席해서 證言하겠다고 專門委員을 통해서 答辯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民正黨은 全斗煥 證人은 出席시키지 않고 議事進行發言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民正黨委員 全員이 이 자리에 出席을 해서 與野가 공동으로...

○鄭昌和委員 李海瓚委員님! 우리 民正黨도 오히려 여기에 왜 不參하고 있는지 이유를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李海瓚委員 예.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場內騷亂)

鄭昌和委員은 議事進行發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慶宇委員이 議事進行發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 發言이 끝나고 나서 民正黨幹事이신 張慶宇委員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鄭昌和委員 民正黨을 자주 얘기를 하시는데 民正黨이 얘기할 時間을 좀 주십시오.

○朴泰權委員 委員長! 뭐하는 거요? 이게 討論會하는 거요?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李海瓚委員 이자리를 지키고 계신 존경하는 民正黨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 이토록 철면피한 全斗煥의 僞證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場內騷亂)

우리가 어떻게 國民의 代表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場內騷亂)

(「發言中인 委員한테 임마라니」하는 委員 있음)

國民의 代表는 發言中인 委員에 대해서 야 임마니 점마니 할 수 있는 그런 속된 사람이라고 교양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國會의 品位를 지킬줄 알고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中斷...

子正이 되었기 때문에 次數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李海瓚委員 저는 마지막으로 委員長에게 한 마디의 議事進行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라도 委員長께서는 여기 나와있는 民正黨委員들과 함께 全斗煥 證人을 출석시켜서 골충분한 補充質疑를 통하여 충분한 訊問을 할 수 있는 기회를 聽聞會에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議事進行을 마치겠습니다.

단 빨리 4黨幹事가 협의해서 全斗煥 證人을 출석시켜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子正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會議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58分 散會)

○出席委員

黃金	明顯	秀煜	金朴	仁進	冰球	金徐	重廷	權華																		
辛張	顯再	煜基	朴安	進乘	球珪	徐李	廷聖	華浩																		
黃張	慶再	宇禹	安趙	庚潤	珪穆	李洪	熙熙	杓杓																		
朴張	慶再	千元	趙黃	潤性	穆佑	金李	令東	培根																		
林相	春信	元玉	梁趙	性昇	佑衡	崔金	洛東	道周																		
姜盧	武東	鉉炫	金沈	昇東	圭求	金金	鍾一	植永																		
文金	東吉	煥弘	申康	完五	求澈	鄭權	海明	玉輔																		
安李	榮肯	基珪	辛劉	祐卿	澈赫	沈李	光東	魯魯																		
鄭李	昌海	和瓊	李金	守敏	赫植	李鄭	基贊	夏衡																		
趙朴	洪泰	奎權	趙崔	泳泳	植鑾	辛趙	贊光	一濟																		
張尹	石在	和基	吳金	鳳景	鑾昇	金李	仁仁	坤坤																		
			鄭	文夢	昇九								文夢	義元								鄭	準			
				文夢	義元								鄭	準												
				鄭	準																					

○委員 아닌出席議員

俞李	棋春	浦九	李李	澤漢	錫東	李金	基鎔	澤采
崔崔	春珪	圭圭	李金	漢龍	東煥	劉朴	鎔基	采洙
鄭朴	珪東	星律	盧許	龍承	煥基	朴沈	鍾晶	洙泰
延申	濟濟	源澈	李金	承萬	基先	申崔	晶喆	泰求
金金	河杞	培澈	魯慎	道濟	泰俊	金趙	冰正	均謹
曹金	長喜	淑澈	李韓	濟興	範浩	李朴	富台	吉英
白金	東南	仁治	鄭金	順德	浩玉	金金	台錫	燮武
朴崔	鍾寬	基用	鄭白	光宗	澤玉	李李	台洪	植萬
鄭李	寬正	植護	成朴	宗得	洙德	李李	慈大	憲燁
蔡金	石汶	哲植	朴徐	得順	德基	南鄭	致致	燁浩
	東宗	英鎬	朴	環環	基漢	申宋	載載	熙熙
				靈靈	秀秀		大榮	哲國
				錫在	彥彥		斗	源

鄭金	東文	允起	許金	京正	萬秀	朴辛	燦相	太佑
具滋	文滋	起春	徐清	正清	秀源	洪英	相英	佑基
孫周	周相	春恒	金永	永承	先禧	張英	英永	基基
李尹	相吉	恒回	李元	承元	禧基	金永	永大	結中
鄭鄭	祥洪	回重	金柳	元晚	相鎬	李趙	大璋	中鳴
趙趙	世在	容奎	崔崔	二在	鎬旭	趙盧	璋載	鳴根
洪洪	聖應	奎基	李金	鍾德	贊贊	李蔡	南仁	根煜
金金	應晉	光模	金金	德榮	主龜	蔡崔	仁廷	煜煥
姜李	麟麟	善榮	金金	榮日	龜東	崔崔	映映	煥武
李金		榮求	金金	重重	東緯		雲雲	煥武
					緯		雲雲	煥武

○出席專門委員立法審議官

專專	門門	委委	員員	官官	趙陳	在在	錫勳
專專	門門	委委	員員	官官	崔金	在在	勳勳
立立	法法	審審	議議	官官		再再	勳勳
						水水	善善